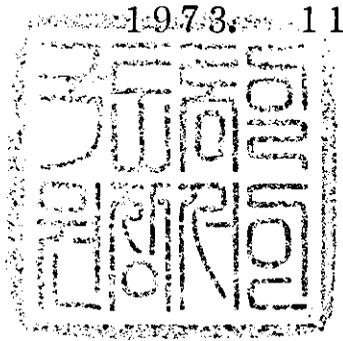


국토 통일원 1973년도 후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서 이를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일보사 통일문제 연구회
연구책임자 : 박 동 운
연구위원 : 이 형 수
 최 중 수
 서 광 운

对北心理戰의 效果的 展開方案

차 례

序論 (对北心理戰의 方向設定과 与件變化)	3
第一章 北韓의 階級路線과 慢性的 不安要因	16
- 对北心理戰의 対象分析 (I) -	
I. 対象分析의 意義	16
II. 北韓의 <階級路線>과 <住民再登錄>事業	17
III. <基本群衆>과 <複雜한群衆>分類에 보는 問題狀況	21
IV. 中共方式과의 比較에 나타난 北韓의 拙劣性	24
V.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構造的 矛盾	26
第二章 各階層의 意識構造 및 対象別呼訴의 方向	29
- 对北心理戰의 対象分析 (II) -	
I. 北韓의 <核心群衆>	29
II. 勞動階級과 農民階級	33
III. 北韓의 <兵士>層	38
IV. 北韓의 <인텔리>階層	39
V. 疎外된 <複雜한 群衆>	41
VI. 北韓의 <세대>問題	44

第三章 对北心理戰의 生活科学的側面的 考察	47
I. 氣象으로 본 遠心求心作用	47
II. 色彩의 心理分析	50
III. 服裝의 活動에 미치는 影響	53
IV. 飲食과 生活環境의 比較	56
V. 標語의 變遷	59
第四章 对北心理戰의 媒体와 通路의 再整備強化方案	63
I. 心理戰의 主要媒体	63
II. 放送施設의 問題点과 補強策	66
III. 放送內容의 問題点과 補強策	70
IV. 对北心理戰通路의 現況과 補強策	73
第五章 南北韓心理戰應酬의 過去와 現在	79
I. 北韓의 对南·对内心理戰	79
II. 韓國의 對抗·積極心理戰	85
III. 海外에서의 挑戰과 対応	90
第六章 戰略·戰術面の 評價	94
I. 目標設定	94
II. 內容과 形式 및 技法	96
III. 效果의 測定	101
結 論 (狀況判斷 및 与件造成에 관한 建議)	107

序 論

—對北心理戰의 方向設定과 條件變化—

I. 現段階 對北心理戰 基本課題

韓國의 對北韓政策은 1972年 南北對話 開始後 뚜렷이 闡明된 바와 같이 當面한 緊張緩和 및 分斷苦痛輕減을 거쳐 終局的으로는 우리의 国力培養을 土臺로 平和的統一을 達成하려는 것으로 要約된다. 對北心理戰은 이 國家政策에 副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에 北韓의 對南政策 變遷樣相에 따라서는 모처럼 우리가 主導해온 「對話있는 對決」이 다시 「對話없는 對決」로 還元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一般的으로 心理戰이란 對象으로 하여금 우리의 目的에 어울리는 態度·行動을 취하게끔, 또는 이에 逆行되지 않게끔 誘導해 나가려는 心理的 「어프로우치」를 말한다. 對北心理戰의 경우 그 目的設定은 우리의 現段階 對北韓政策 總方向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諸局面을 指摘해야 할 것이다.

- ① 敵意의 解消. 우리側의 平和愛好姿勢를 信賴케 하는 동시에 그들이 劃策할 수 있는 對南冒險이 非道義的이며 또한 無用하다는 認識을 賦與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統一問題를 다루는 韓國의 段階的 接近方策이야말로 現實的이며 또 合理的이라는 일깨움의 普及. 다시 말해서 우리側의 1973年 6.23 宣言에 보는 相互開放 및 「유엔」同時加入 推進의 正當性을 浮刻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逾和感의 緩和. 民族的同質性의 維持와 拓作을 위한 우리側의 忍耐와 誠意를 해야 한다.
- ④ 離散家族찾기와 南北간의 多方面的인 交流·交易의 發展을 통한 分斷苦痛輕減의 當爲性을 強調할 뿐만 아니라 우리側 提案에 나타난 그 現實的 條件形成志向을 共感케 한다.
- ⑤ 對南동경심의 鼓吹. 南韓의 繁榮과 發展相을 紹介한다. 종전의 경우 우리의 對北宣傳은 自主民主主義制度의 優越性 力說에 置重한 느낌이 많았으나 對外關係의 脫「이데올로기」的 傾向등 最近의 趨勢를 勘案한다면 앞으로는 南韓의 人間尊重과 國民所得向上에 보다 많은 力點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⑥ 自由化의 促進. 이것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이 體制差의 緩和 없이는 거의 不可能하리라는 考察과 直結된다. 우선 北韓의 戰鬪的「스탈린」主義를 時代錯誤的인 것으로 돌려버려야 한다.
- ⑦ 「뉴우스·쏘스」로서의 信憑性 確保. 北韓의 閉鎖社會 住民들로 하여금 우리의 소리를 窓口삼아 世界의 進運을 正視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녕 開放을 두려워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北韓이다.

II.北韓의 心理戰障壁과 階級路線의 盲点

그런데 韓半島의 南北關係는 선듯 「異質體制간의 對決」이라고만 簡單化할 수 없는 錯雜性을 느끼게 한다. 흔히 心理戰은 그 對象따라 ① 敵對的 心理戰 ② 中立的 心理戰 ③ 友好的 心理戰으로 分別된다. 하지만 對北心理戰은 한편으로 南北간의 「對決」狀況과 간혹적인 緊張高潮로 미루어 보면 敵對的 心理戰에 該當된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民族的同質性을 維持 또는 復活시키면서 巨視的으로 平和的統一을 指向한다는 特異性이 있다. 그러한 條件은 다른 한편 北韓側의 對南心理戰이 우리側 地域의 住民들에 대해 部分的으로나마 無視할 수 없는 呼訴力을 가질는지 모른다는 局面을 想到케 한다. 즉 우리의 對北心理戰은 유난히 攻·守兩面에 걸쳐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心理戰에서 우리側의 攻勢를 취하는 경우라 해도 北韓의 防禦用障壁은 類例없는 「차임새」를 느끼게 한다. 우선 그들의 體制는 中共以上の 「思想優先·政治第一」主義에서 全住民을 모두 一定한 「思想學習網」에 組織化하고 있으며 日常的으로 「물샬틈 없는」 宣傳의 如隸되게끔 馴化하는 實情이다. 나아가서 그들의 思想·宣傳分野의 統制는 심지어 住民이 所持하는 「라디오」의 「다이알」을 그 官營放送만을 聽取하는데 그치도록 固定化시켜 놓은 데서도 如實히 觀察된다. 하기야 黨幹部, 空軍操縱士, 戰車通信兵, 通信器資材技術者 등은 우리의 放送에 接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制約條件은 우리의 對北心理戰에서 第三國과 海外교포

를 통한 迂迴的 心理戰의 比重을 높여주는 동시에 呼訴內容의 質的精選을 다짐하게 한다.

한편 北韓側의 对内心理戰 防壁을 뚫고 들어가는데는 그들의 宣傳·組織網에도 不拘하고 盲點 또는 矛盾의 所在를 正確히 把握하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 특히 共産党的 「階級」分別政策 즉 「成分따저기」와 이에 附隨되는 社会的 不平等을 해야될 必要가 있다. 北韓에서 社会各階層에 대한 成分劃分·調査作業이 本格化한 것은 1950年代 後半期의 일인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獨裁」標榜이 露出된 것과 時期的으로 一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基本成分」 즉 党的 信任과 本人의 出世 및 大學進學이 尤달리 保障되는 階層이 全人口에서 占하는 比率은 매우 적은 것으로 判明되었다. 원래 北韓當局의 成分調査作業은 「集中指導」 내지 「住民再登錄」事業이라는 指稱下에 強行되었었다.

하지만 이 作業이 一段落되자 北韓共産党局은 中央黨 組織指導部長인 金英柱 陣頭指揮下에 所謂「뚜껍 벗기기 運動」을 展開해야만 했다. 成分審査過程에 「나쁜 成分」으로 規定되어 失意落望中에 있는 사람들을 大量 救濟하면서 그들의 억울을 풀어준다는 趣旨였다. 그다음에 온것은 金日成의 이른바 「全人民의 勞動階級化」呼訴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껏 蘇聯처럼 「全人民國家」임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疑問의 餘地없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強化段階에 처해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 人口의 過半數以上이 出世와 進學에 있어 基本成分에 비해 不當한 差別待遇를 免

치 못한다고 觀測된다.

勿論 그 潛在的 不平階層의 心理的狀況은 한결 같지 않다. 어쨌든 우리의 對北心理戰은 그러한 疎外階層에 대해 各별한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階層別 呼訴에 관한 持續的 研究를 必要로 한다.

Ⅲ. 南北對話따른 對北心理戰의 制約條件

나아가서 韓國의 對北心理戰은 1972年 南北調節委員會 水準의 對話開始이후로 極 流動的인 新制約條件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전의 것이 한마디로 「反共宣傳」이었다면 그 이후의 것은 對話進展의 起伏과 各段階의 對話戰略에 副應하는 伸縮性을 갖추어야만 했던 것이다.

가령 72年 7·4 共同聲明은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한다고 했고 또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끊어졌던 民族의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경우에 對北心理戰의 劃期的인 條件變化라고 볼 것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었다.

- ① 從來에는 北韓의 思想, 理念, 制度를 非難해 왔으나, 그것을 超越한다면 남는 것은 「民族」과 「人間性」이다.
- ② 건들리지 않고 誘導해야 하는 까닭에 從前이상의 知慧集中과

技法이 必要하다.

- ③ 韓國의 自主性과 同胞愛를 「클로즈·업」시키는 加一層 努力이 促求된다.
- ④ 韓國이 南北對話를 主導해야 한다는 見地에서 「忍耐와 誠意」로 一貫된 「兄의 雅量」發揮가 아쉽게 되었다.
- ⑤ 南韓自體의 心理的 内部整頓이 必要했다. 특히 留意해야 할 局面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었다. (가) 北韓側에 말려 드는것 아니냐하는 危懼心이 일부 國民과 軍部에 甾틀 수 있었다. (나) 일부 政治人中에는 政府가 南北對話獨占으로 政權延長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疑問視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 世稱「不信風潮」속에 衝擊的 報導를 접하는데 따라 政府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는지 모른다」는 憂慮도 없지 않았다고 들었다. (라) 極小數 左傾層이 南北對話에 즈음해 「急進」化할 可能性도 없지 않았다. (마) 反共教育과 國軍의 政訓에 걸쳐 指針의 混亂이 그 轉換期에 惹起될까 염려되기도 했다.

그 후 南北調節委와 南北赤十字會談이 서울과 평양에서 交換開催方式으로 進行되는데 따라 大衆媒体(新聞, 放送)의 「報道」內容 및 姿勢가 크게 말성된바 있다. 72年 9月13日 서울에서 열린 南北赤十字 第3次本會議에 즈음해서 우리측 大衆媒体들이 北赤代表團의 엉뚱한 「政治的 發言」을 批判的으로 報道, 論評하자 이에 대한 応酬인양 北韓의 大衆媒体는 우리측에 대한 批判 정도가 아

년 露骨的인 對南誹謗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 우리 측 會議主務当局은 新聞, 放送 등 言論機關에 대해 「協調要請」을 積極化하게 되었다. 하지만 北韓과 判異한 韓國社會의 言論自由와 主務当局에 「協調要請」간의 調和設定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후 11月4日자로 發表된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의 合意書는 「서로 誹謗, 中傷을 하지 않기로한 南北共同聲明의 條項에 따라 72年 11月11日 零時를 期하여 對南, 對北放送과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擴声器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 相對方 地域에 대한 罷拉撤布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 「11·11措置」는 韓國측 言論機關의 自制와 当局의 勸奨에 의하여 잘 지켜졌다. 다른 한편 北韓측의 大衆媒体와 宣傳機關은 巧妙한 迂回的方法和 隱密의 手段을 통해 그들의 對內, 對南, 對外 心理戰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一方的制約甘受와 같은 不均衡狀態 招來를 痛感케 했던 것이다. 그 경우에 北韓측 手法은 다음과 같이 要約되었다.

- ① 所謂「統革黨의 소리」라는 黑色放送을 통해 對南誹謗을 계속 하면서 그 放送出處가 마치 南韓某處인양 強弁하였다.
- ② 第3國(특히 中共의 北京放送)을 통한 迂廻的 對南心理戰을 強化했다.
- ③ 對美, 對日 非難을 통해 間接的으로 南韓에 心理戰的 連打를 거듭해 왔다.
- ④ 北韓住民들에 대한 對南敵愾心 鼓吹에서는 大衆媒体에 報道되

지 않는 「學習組織網」을 통해 종전이상의 宣傳, 煽動을 일삼았던 것이다.

그와 같은 北韓측 動向에 대한 우리측의 心理戰的 対応方策은 直線的 応酬를 自制하는 가운데 方法의 多樣化를 摸索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 들이 노리는 内部混亂劃策에 대해서는 ① 學校教育, 社會教育에 걸친 勝共思想教養 ② 軍政訓教育의 再整備 ③ 각종 講演事業의 활발화가 講究되었다. 한편 攻勢面에서는 ① 第3國을 통한 迂廻的 心理戰 ② 會議 및 板門店, 休戰線 接觸을 통한 心理戰이 두드러졌으나 그 效果測定에 關係서 이렇다할 自信의 根拠를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IV. 北韓측의 挑發的 宣傳攻勢

72年 10·17 宣言을 契機로 韓國이 「10月維新」 體制改革에 들어서자 北韓측의 對南誹謗은 더욱 加重되었으며 그 官營「매스·매디어」가 總動員되는데 이르렀다. 이 경우에 北韓측의 意圖는 ① 南北對話가 北韓自体에 別로 利得이 없는 대신 南韓의 現政權에 의한 體制安全에나 寄与했다고 보는 그들의 中間決算 ② 北韓에 대한 「自由의 바람」 侵透에 대한 警覺心의 表現 ③ 統一戰線 戰術로 이른바 「南朝鮮革命」에 有利한 革命情勢造成에 邁進해야 한다는 北韓내 強硬派의 得勢등으로 分析되었다.

73年 들어 北韓측은 鐵面皮하게도 6·25 動亂 挑發責任을 南韓에 轉嫁시키려는 心理戰攻勢까지 서슴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緊張緩

和 대신 赤化統一을 推進하며 또 73年 가을부터 南北韓同時招請이 豫想되던 時期에 第28次 「유엔」總會를 앞둔 宣伝政勢의 強化라고 測定할 수 있었다.

이어 朴大統領의 6.23 宣言과 이에 对照되는 金日成의 6.23 演說이 發表된후 北韓측의 對南誹謗은 날로 白然化되어 갔다.

그들은 韓國政府를 가리켜 「두개의 朝鮮」을 劃策하는 統一不願 勢力으로 規定짓고 굽기야 政府当局 「레벨」의 對話를 排除하듯이 6月24日字 祖統 呼訴文은 「各階冬層人民과 각 政黨, 社会团体」간의 協商등 表現을 썼다. 南韓에 대한 体制否定, 統一戰線 劃策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또 「유엔」總會를 앞두고 國際舞臺에서의 南北對決이 날로 熾烈化했다.

드디어 北韓은 73年 8月에 發生한 金大中事件으로 韓國이 國際輿論앞에 難處해지자 이에 便乘 一方的으로 南北對話를 中斷시키고 말았다. 南北調節委員會 평양측 共同委員長인 金英柱名義의 「8.28 聲明」은 그동안의 對話相對인 서울측 李厚洛共同委員長을 擯斥한다고 했으며 對話再開의 條件으로 調節委 人的構成改編뿐만 아니라 韓國측이 到底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각종 難題를 一方的으로 提起하는데 이르렀던 것이다.

「유엔」에서의 南北對決은 그 基本 「이슈」가 韓國측의 南北韓 「유엔」同時加入案, 北韓측의 「유엔」軍撤収案으로 集約된 것 같은 印象을 감돌게 했다. 그러나 11月21日에 「유엔」政治委가 兩側 提案에 대한 表決을 回避하고 滿場一致로 採択하였으며 이어 29日

「유엔」總회가 承認한 共同声明은 南北韓이 高루 받아 들일 수 있는 模糊한 内容의 것이 었다. 그 骨子は ① 自主, 平和, 民族的大團結을 다짐한 72年 7·4 共同声明에 대한 歡迎과 注視 ② 南北對話의 進展에 관한 希望 ③ 「언커크」의 即刻解体 등으로 要約된다. 결국 「유엔」은 韓國問題를 分斷쌍방과 強大國協商에 내맡긴 꼴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一方을 一辺倒 支持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韓國의 統一外交는 중전처럼 「유엔」依存外交일 수 없게 된 셈이다.

V. 与件變化에 보는 明暗兩面

이제 對北心理戰과 關聯있는 1973年의 与件變化는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마이너스」要因이라고 들 것은 ...

- ① 金大中事件으로 말미암은 韓國의 「이미지」損傷. 例컨대 「情報政治」나 「獨裁國」 또는 「인권유린」 내지 外國의 「主權侵害」등.
- ② 北韓에 의한 一方的 對話中斷 및 反韓宣傳激化. 所謂「統一不願」 「콧소政治」등 非難.
- ③ 海外교포社會의 動搖
- ④ 國內의 政治·社會的 不安. 學生「데모」와 宗教界의 錯雜한 動向 世稱 「不信風潮」.
- ⑤ 中東戰에 즈음한 美國의 「이스라엘」援助와 北韓의 「에집트」

- 支援으로 말미암은 「아랍」圈 相当数国家들의 韓国排斥氣運
- ⑥ 石油波動과 金大中 事件의 餘波등 韓국의 經濟成長阻害要因의 發生.
- ⑦ 所謂 「아메리칸·코리아」라는 誤解에 따른 第3世界에서의 不利.
- ⑧ 北韓의 國際無台進出 對西方接近 努力과 「유엔」에서의 「옵서버」代表部設置.
- ⑨ 「유엔」에 의한 韓国一辺倒支持의 中止. 73年 11月21日 字 共同聲明.
- ⑩ 對共產圈接觸 努力에서 아직껏 直接對話 위한 橋頭堡를 하나도 設置하지 못했다는 事情. 反面에 北韓의 對西方國修交活動이 積極化.
- ⑪ 北韓의 金日成體制 鞏固化와 그 對內宣傳 및 統制의 強化.
- 다른 한편 韓국의 心理戰展開에 「플러스」要因이라고 들것은 :
- ① 中·蘇紛爭의 加一層 深刻化와 그들간의 戰爭危機.
- ② 蘇聯의 匪細亞安保構想과 北韓의 對中共傾斜에 대한 牽制意慾
- ③ 美·中共간의 對話 進展.
- ④ 美·蘇간 平和共存 直接衝突回避의 安定化 趨勢.
- ⑤ 東西冷戰의 終熄氣運과 脫「이데올로기」時代의 漸次的 到來
- ⑥ 韓國과 蘇聯·東歐圈간의 非政治的 交流의 漸次的 進展氣運.
- ⑦ 韓國에 의한 親蘇中立國(印度)接近.
- ⑧ 6·23 宣言따른 進取的 開放外交와 自繩自縛的 「할슈타인」原

則의 正式 脱皮

⑨ 金日成集團의 好戰性, 內政干涉性向 등이 中南美에서 問題化.

⑩ 北韓의 對南臨戰態勢와 軍備增強에 대한 國際的 警覺心.

以上과 같은 韓國心理戰의 与件變化는 우리로 하여금 明暗兩面을 생각케 하면서 機會와 더불어 放心을 不許하는 問題狀況을 直視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본지 韓國의 1972年 「10月維新」의 重要한 名分은 南北對話의 繼續위한 体制成集團은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킴으로서 韓國의 現体制를 崩壞시키고자 劃策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早速히 北韓을 南北對話場에 다시 끌어내는데 心理戰의 現段階 目標를 두어야 할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心理戰 實務者들의 活動뿐만아니라 後에 結論(建議)部分에서 言及하려는 바와 같은 主体的 및 客觀的 條件의 整備도 必要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측은 73年의 경우 北韓측의 一方的 對話中斷과 險口 非難에도 不拘하고 最大限의 「自制」를 보였으며 對話再開를 위해 「忍耐와 誠意」를 立證하였다.

하기야 우리가 南北對話 再開를 위해 아무리 애써봤자 北韓側이 끌내 듣지않고 도리어 南侵威脅만 加重시킨다면 問題가 달라진다. 그경우 우리의 對北心理戰은 不得已 對敵瓦解工作과 같은 典型的인 敵對的心理戰에 移行할 수 밖에 然 道理가 없을것 같다.

이論文은 그와같은 諸般狀況을 勘案하면서 「對話있는 對決」 뿐만아니라 「對話없는 對決」 還元의 可能性까지 想定하여 問題點과

対応策을 整理, 考察해 나가고자 한다. 때로는 論文全体에 걸친 論理的 一貫性에서 若干 벗어난 느낌이 짙은 部分도 있을 것이다. 複數研究者에 의한 集体論文作成이라는 애로가 있었으나, 그보다도 客觀的 狀況의 流動性을 考慮하는 데서 視角의 多樣性이 無意味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最初의 研究計劃에 들어있던 第三국을 통한 迂廻的 心理戰과 南北接觸을 통한 心理戰 등은 다른 研究機關의 所管이므로 이를 割愛키로 했다.

第一章 北韓의 階級路線과 慢性的 不安要因

- 對話心理戰의 對象分析 (I) -

I. 對象分析의 意義

心理戰에서의 對象分析은 우리의 呼訴에 대하여 과연 어떤 階層이 가장 바람직한 反應을 보이는 傾向이 있는가를 把握할 뿐만 아니라, 비록 拒否反應을 例事로하는 頑固層이라해도 어떤 條件變化속에 呼應해 올 可能性이 있는가를 헤아리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特定地域(또는 國家)의 全體人民의 態度를 總體的으로 變化시키기는 어렵지만, 共同的인 小集團이라든지 階級등 成員歸屬이 明白한 集團일수록 그 態度를 變化시키는것은 比較的 容易하다는 것이 社會心理學의 通說처럼 되어있다. 나아가서 同一體制下에 사는 住民들이라해도 社會的 処遇와 教育·敎養水準의 差異에 따라 그들에 대한 「用語」使用이 分別되어야 한다는데는 金說明이 필요하지 않다. 心理戰的 呼訴는 各集團의 關心과 欲求 그 忠誠心과 憎惡心에 어울리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사람들의 情報受容은 「選擇的」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過去經驗의 蓄積과 自身の 現在立場에 調和的인 것일수록 受容하기 쉬운 뿐더러 그러한 知識, 關心, 意見, 態度에 비추어 關聯的인 意味解釋을 하게 된다. 社會心理學者들은 그와

같은 選択的 傾向을 「先有傾向」(predisposition) 이라고 부르고 있다. 누구나 어떤 情報에 接하여 그것이 「不協和」感을 惹起시키면 不快하거나 不安하기 때문에 이를 回避하려는 性向이 觀察되지만 그逆定理도 成立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적에 우리의 對北心理戰은 그곳 「疎外」階層에 의하여 가장 잘 受容 되리라는 것은 쉬 짐작이 갈듯하다. 다른 한편 共產北韓에서 나서 자라고 教育받았으며 바깥世界를 모르는 獻身的 共產主義者를 轉向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는 常識論도 많이 普及되어있다. 그러나 이들이라해도 그集團으로부터 遊離되고 疎外狀況에 던져지고 보면 事情이 判異할 수 있다는 것이 가끔 實証된 바 있다. 그條件의 分析 또한 理論文의 課題이어야 할것이다. 하기야 對北心理戰의 當面目標는 多數人의 完全한 轉向보다도 우리의 現段階 北方政策에 副應케하는 最小限의 態度變容이면 足하다는 一面을 생각할 수 있다.

II. 北韓의 「階級路線」과 「住民再登錄」事業

北韓社會의 疎外와 參與 問題는 第一次的으로 階級成分의 分類에 直結된다. 萬一 「나쁜 成分」으로 分類되는 날이면 아무리 그곳 體制에 忠誠을 바치려해도 黨組織은 勿論 行政機構에서도 幹部로 昇進할 수 없고 人民軍에서는 軍官이 되지 못한다. 그이전에 義務教育이상의 進學의 길이 막히고 普通教育過程에서도 學業成績여하를 不問 「優等賞」도 受領할 수 없게된다. 生産職場에서

훌륭한 「技術革新」을 이룩했다해도 成分이 나쁜 사람은 「勞動英雄」으로 되지 못하며 그의 功勞는 作業性格이 類似한 成分이 좋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따름이다.

그成分은 出身成分과 社會成分으로 区分되어 記錄된다. 出身成分이란 家庭成分이며 주로 父母의 社會的地位와 財産·職業·經歷에 의하여 規定된다. 한편 社會成分이란 本人自身の 職業 및 經歷을 따지는 것이다. 幼兒의 出生申告와 동시에 그出身成分이 晝類에 分別, 記入되는데, 철모르는 어린이의 一生에 걸친 運命은 벌써 그 瞬間에 決定되고마는 形편이다.

그와같은 實情은 오늘날 共產圈내에서도 類例를 찾기 힘든 敎條主義的 苛酷性을 느끼게 한다. 蘇聯은 이미 「全人民國家」임을 宣稱하였고 中共이라해도 한때 그成分劃分事業이 지나쳐 「基本成分」이 全人口의 不過 24%로 判明되는데 이르러 黨의 孤立化를 憂慮한 中共黨中央委에 의해 苛酷한 成分追窮이 中斷되었던 것이다. 北韓의 경우는 「프롤레타리아 獨裁」期の 階級鬭爭치고도 가장 고약한 「스탈린」主義의 後進의 形態에 該當된다.

「마르크스」는 『共產黨宣言』에서 「從來의 모든 社會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다」고 말하였다. 그 「階級」을 定義하면서 「레닌」은 「階級이란 歷史적으로 特定한 社會의 生産制度안에서 차지하는 位置, 生産手段에 대한 所有關係, 社會의 勞動組織안에서의 役割등에 따라 社會的 富의 分配를 차지하는 次元과 方法등을 달리하는 人民의 大集團이다」고 하였다. 一般적으로 共產敎條主義者

들은 人間의 社会的本質은 人間의 階級的地位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北韓의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理論機關雜誌 『근로자』의 1964年 2月号는 「人間性은 純粹한 人間이 아니라 階級的인 것이며, 超階級的인 人類愛는 革命과는 因緣이 없다」고 斷言했다. 또 金日成은 1948年의 第2次黨大會에서 「土地」를 빼앗긴 地主의 思想은 그가 죽어야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엔겔스」에 의하면 近代市民社會의 基本的인 階級對立은 「生産手段의 所有者」인 資本家階級과 「自己의 生産手段을 所有하지 못하며 生活을 위해 自己의 勞動力을 팔아야하는 勞動者階級의 그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解放前」 北韓은 단순한 資本主義社會가 아니었다. 36年間に 걸친 日帝統治下에 資本主義는 侵透해 왔으나 半封建·植民地社會였던 것이다. 이어서 國土兩斷으로 말미암아 數百萬의 「越南者」와 「越北者」가 發生하였고 또 6.25 動亂을 契機로 엄청난 數萬의 反共鬪爭者가 發見되는데 이르렀다. 게다가 共產圈 내에서도 類例가 없는 宗教抹殺政策, 金日成個人崇拜體制 定立過程의 각종 肅清騷動, 農村經理集團化와 性急한 中小商工業廢絶 및 收奪 등 諸設施策의 無理強行으로 「反動成分」이 더욱 複雜多端하게 되었으며 각종 「宗派分子」와 그 家族數도 만만찮게 深刻한 問題提起를 되찾게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와같은 錯雜한 諸般事情으로 미루어 北韓의 「基本成分」은 中共의 24%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豫想되게 마련이었다.

드디어 北韓의 共產當局은 1958년부터 1960년에 걸쳐 「中央
黨 集中指導事業을 展開하면서 全体住民들을 「基本群衆」 (革命的
要素)과 「複雜한 群衆」 (反革命的要素)으로 区分하기 시작하였
다. 이 「集中指導」는 「프롤레타리아獨裁」에 進入함에 있어
「敵我」를 識別하려는데 主眼이 있었으나 事前準備의 미흡과 各급
幹部들이 「서로 감싸주는 傾向」도 露呈된 바 있어 統計上的 信
憑성이 매우 不足하였다.

이어 1965년부터 3年間に 걸쳐 「住民再登錄」事業이 本格化되
었다. 이 경우에는 理論, 實務의 指針부터 準備할 필요가 있다는데
서 그해 1月 『各階各層 群衆들과의 事業에 대한 概要』라는 冊
子を 中央黨에서 發刊 秘密裡에 各局黨幹部에 配布했다고 한다.
「住民再登錄」의 主管은 中央黨 組織指導部 (部長 金英柱)가 맡았
으며, 無慮 620個에 達하는 「住民了解 그룹」 (英語의 그룹에
該當되는 露語)가 全地域을 巡回하는데 이르렀다. 全住民의 個個
人의 成分을 分類하는데 出身成分의 경우는 直家 8寸, 妻家 4寸,
外家 3寸을 따졌으며 社會成分을 糾明한 적에는 本人의 經歷에
대한 細密한 審問外에 親友와 親知를 再調査하여 確認했던 것이
라고 한다. 결국 그사람에 대한 모든 文件을 再檢討한 끝에 初
級黨秘書, 細胞責任者, 社會安全員등이 參席한 가운데 上級黨에서 派
遣된 「了解 그룹」가 最後 斷案을 내렸다는 것이다. 某사람의
運命을 左右하는 공포분위기속의 「最後의 審判」을 방불케했다고
알려져있다. 本人과 家庭의 全歷史가 日帝時代로부터 國土兩斷,

6.25 動亂, 社會主義建設期에 걸쳐 分析된 끝이었다.

Ⅲ. 「基本群衆」과 「複雜한 群衆」分類에 보는 問題狀況

그들은 우선 全住民을 「基本群衆」과 「複雜한 群衆」으로 分類했다고 한다. 基本群衆은 또 ①「核心群衆」, 즉 革命者와 그 遺家族, 戰死者 및 被殺者家族, 榮譽軍人등과 ②「基本成分」 즉 비록 革命에 積極的인 寄與는 하지 못했으나 勞動者・貧農出身으로 過誤가 없었던 사람들로 区分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複雜한 群衆」에 든 「나쁜 成分」으로는 ① 地主 ② 富農 ③ 資本家 ④ 中小商工業者 ⑤ 前職者(日帝官吏 및 南韓公務員出身) ⑥ 越南者家族 ⑦ 反動團體 加担者 ⑧ 「인텔리」(共產治下에서 教育받은 「새 인텔리」는 靑壯지만 日帝時代 및 南韓에서 教育받은 이른바 「낡은 인텔리」가 問題視된다) ⑨ 歸還兵(6.25 포로출신) ⑩ 宗教人 ⑪ 逃避者(人民軍 忌避者) ⑫ 宗派分子와 가 家族 및 緣故者(党内 肅清騷動으로 除去된 前黨幹部들과 그 親知등) ⑬ 出所者(前科者) 등이 分類되었다.

이러한 「複雜한 群衆」은 当局에 의하여 다시 ① 教養對象 ② 監視對象 ③ 獨裁對象으로 区分당했다고 한다.

어쨌든 그들은 北韓社會에서 疎外를 強要당했으며 昇進은 고사하고 子女들의 大學進學이 絶望視되고 말았다. 특히 「獨裁對象」에 編入된 사람들은 平壤이나 休戰線 近傍에서 모조리 逐出당했으며

指定된 僻地의 鉸山이나 牧場 或은 척박한 農村 등에서 重勞動을 賦課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階級成分 劃分은 北韓社会에 嚴重한 後遺症을 남겨 놓았으며, 向後 一世代에 걸쳐 좀처럼 挽回하기 어려우리라고 測定되는 弱點을 造成하였다. 우선 「基本成分」과 「複雜한 成分」이 全人口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있어 「基本成分」이 極少數에 不過하다는 事實이 判明된 것이다.

그점은 住民再登錄事業에 관한 集計가 一段落되자 党中央委 組織指導部長인 金英柱가 서둘러서 所謂 「두경벗기기」 運動을 呼訴했으며 곧이어 独裁者 金日成 自身이 이른바 「全人民의 勞動階級化」를 되풀이 力說하면서 직접 民심수습에 奔走하게 되었다는데서 如實히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幹部政策과 教育政策에 보는 階級成分 따지기는 지금껏 아무런 實質的 改善을 보인바 없으며 또 北韓과 같은 「스탈린」主義體制下的 「프롤레타리아 独裁」強化期에 物議의 根本是正은 不可能視되는 바이다. 全人口의 過半數 사람들과 그 子女들에게 입힌 「마음의 傷處」는 더구나 내다볼 수 있는 將來에 걸쳐 쉬 지우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韓國의 北韓研究者 또는 最近 党情體驗者들이 그 局面을 重要視 하는것은 지극히 自然스러운 趨勢라고 할것이다. 例컨데 李永明씨는 『北韓의 社会現實과 家族制度』라는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滿了年間 계속된 住民再登錄을 一段落 짓고 얻어진 것은 北韓의 當時人口 約 1,200 万名中 有事時 共產主義를 反對할 可能性이

있는 사람이 700餘万名이라는 事實이다. 또한 믿기 어려운 中間層이 無慮 400万名以上이라는 推論이었다. 窮餘之策으로 案出한 것이 1,200万名을 80餘種으로 区分하고 各部類 및 種類에 따라 入党, 幹部登用, 進學, 軍入隊, 政權機關 服務, 海外旅行등의 資格을 区分한것이다. 특히 部類에 따라 秘密監視, 公開監視, 行動制限까지 規定하였다」.

한편 서울의 極東問題研究所에서 主權한 『北韓住民의 成分 分類』에 관한 分析座談會席上에서 最近年에 越南한 한인복씨는 다음과 같이 証言하였다. 「우리가 볼때에 不過 10%程度가 勞動黨과 金日成을 支持하는 階層으로 볼 수 있고 그外에는 거의 다 이러저러하게 結려 있습니다. 우선 그 社會團體 委員會나 이런 委員같은 것도 配置하다 보면 도저히 그 數字를 核心化 한다는 사람으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그 委員會를 여럿을 맡게 됩니다. 不純階層하고 核心階層을 分類해 본다면 10%程度가 黨을 支持하는 階層으로 볼 수 있고 無識하면서 中立의인 態度를 취하는 사람이 20~30%程度, 不純하다는 階層이 적어도 60%程度, 工場 農村을 分類해 보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또 이성근씨는 다음과 같이 証言했다고 한다. 「저는 北韓에 있으면서 오래 전부터 越南을 企圖하면서 사람들의 動向을 좀 보았는데 幹部들에 이르기까지 不滿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北녘 住民의 한 20%程度가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이고, 다음 自由가 뭔가 하는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不平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自由와 大韓民國에 대한 것을 다소라도 알게 되면 共産黨을 背叛할 수 있는 사람이 70%程度라고 지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國際問題』誌 1973年 2月号).

어쨌든 北韓의 住民成分이 中共보다 「複雜」할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따라서 출잡아도 北韓의 「基本成分」이 全住民의 24% 以下일것은 능히 짐작이 간다. 共産當局의 集計結果로 「基本成分」이 13%라고 나타났다는 말도 있으나, 그것은 지금껏 信憑性 있는 公式資料에 의하여 確認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北韓의 階級政策의 弱點이 對北 心理戰의 機會이고, 對衆分析에서 가장 重要視할 局面이라고 볼것이다.

IV. 中共方式과의 比較에 나타난 北韓의 拙劣性

周知하는 바와같이 北韓의 諸般政策決定은 中共의 先行經驗과 實踐을 參考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後進社會에서 執權한 共産黨들의 共通的 需要, 北韓과 中共에 거의 한결같은 「스탈린」主義 政治風土, 金日成을 비롯한 元老級 黨幹部들의 中共黨經歷 등 여러 가지 事情이 介在되었기 때문이라고 分析된다. 하지만 「作風面」의 差異는 너무나 顯著하다.

中共의 階級成分劃分은 主로 「土地改革」實施를 위한 必須課題로서 實踐 되었으며, 그 경우의 基準은 生産手段과 勞動力의 結合關係라고 알려져 있었다. 農村의 階級區分은 다섯가지로 된다. 즉

① 地主란 多量の 土地를 所有하되 自己는 勞動하지 않고 小作料
를 搾取하는 사람 ② 富農이란 多量の 土地를 所有하되 自己도
勞動하면서 雇農도 搾取하는 사람 ③ 中農은 土地를 所有하되
自己의 勞動으로 經營하고 따라서 搾取당하지도 않고 남을 搾取하
지 않는 사람 ④ 貧農은 土地와 農具가 不足하여 部分的으로
小作하거나 勞動力을 팔기도 하는 사람 ⑤ 雇農은 生産手段이
전혀 없어 勞動力만 팔고 生活하는 農業勞動者로 나눈다는 것이다.
中共은 이 成分劃分에 立脚하여 地主와 富農의 土地, 財産을 無償
으로 沒收하여 貧·雇農에 分配했는데, 中共은 全혀 손대지 않는
方針이었다.

그리고 각종 救濟手段을 講究해 두었는데 가령 過去의 地主라도
沒落후 滿 1年間 몸소 勞動하여 生計를 꾸려 나갔다면 成分의
「轉化」가 認定된다. 女子가 結婚했을 경우라면 滿 5年을 基準
으로 配偶者의 成分을 따르게 했는데 그것도 地主·富農·資本家の
딸이 「基本成分」 所有者에 出嫁했을 때에는 滿 1年으로 「좋은
成分」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成分劃分과 土地分配를 위해서는 黨組織의 工作員이 派遣되기는
하나 이른바 「群衆路線」을 尊重해야 한다는데서 現地の 貧·雇農
을 中心으로 일부 中農도 參加시키는 農民協會를 組織하곤 했다.
다만 中共中央委에서 採択한 『農村階級成分 劃分에 관한 決定』
(1950年 8月 4日字)을 基準삼으라는 것이었고 工作員은 그
線에서 農民을 돕는다는 主旨였다.

한편 「知識分子는 하나의 階級要素로 看做할바 아니다」고 했으며 「인텔리」는 靑少年學生들과 더불어 出身成分은 記錄에만 남기고 本人의 社會成分을 앞으로 지켜본다고 했다.

그러한 中共方式과 比較할 적에도 北韓方式은 가 苛酷性과 拙劣性이 다음과같이 要約·指摘된다.

- ① 下向式 命令主義로 一貫한 것으로 中共의 群衆路線과는 判異하다.
- ② 統一戰線을 통한 各個擊破대신 全住民을 都市와 農村에 걸쳐 一時에 恐怖 분위기로 몰아 넣었다.
- ③ 理論的 明確性이 欠如되었으며 이른바 「宗派分子」마저 社會經濟的 側面에서 다루려했다.
- ④ 人口의 大部分에 挫折感을 들게우면서 實質的인 救濟手段을 講究하지 않았고 특히 「인텔리」對策이 拙劣하였다.

V.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構造的矛盾

그후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第1次會議에서 이른바 「社會主義 憲法」이란 것을 採択하였다. 그 第7條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 「인텔리」에게 있다」고 했으며 第10條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로 統治하며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으로 統治한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第11條는 「國家는 内外 敵對分子들의 破壞策動으로부터 社會主義 制度를 保衛하며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勞働階級化한다」고 規定하였다. 또 第26條는 「都市와 農村의 差異, 勞働階級과 農民의 階級的 差異를 없애기 위하여 郡의 役割을 높이며 農村에 대한 指導와 幫助를 強化한다고 했다. 第54條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했는데, 敎會다운 敎會가 하나도 없는 北韓이고 보면 力點이 어디 있는지는 不問可能의 일이다.

階級路線에 關聯있는 그들의 憲法規定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勞働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외의 다른 成分은 「主權」의 參與에서 完全히 排除되었다는 事實이다. 그나마 「프롤레타리아」獨裁가 露骨적으로 宣言되었으며 勞働階級에 의한 農民 階級에 대한 「指導」가 宣言되었으니 農民도 相對的인 疎外感을 免치 못하는 형편이다. 「內外 敵對分子들의 破壞活動」에 대한 鬭爭을 憲法에 까지 못박았다는 것은 「階級路線」과 關聯있는 警察恐怖統治의 統行을 豫見케 한다. 宗教抹殺政策도 旧態依然하다.

원래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想定한 「프롤레타리아獨裁」란 多數者에 의한 少數者에 대한 獨裁라는데서 正當性根柢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後進的 半封建社會에서, 더우기 植民地狀態로부터 갖 벗어난 北韓과 같은 「케이스」에 보면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그것이 事實上 少數者에 의한 多數者에 대한 獨裁임이 判明되었다. 이로부터 焦燥하게 된 共產獨裁層은 그 統治制度를 維持함에 있어 말뿐인 「群衆路線」보다는 警察恐怖統治手段에 더 많이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北韓에서의 共產黨 執權은

애당초 「밑으로부터의 革命」이 솟아오른것이 아니었고 오직 蘇聯 軍의 占領下에 下向的 命令的으로 이루어진것에 不過했던 것이다.

어쨌든 共産圈內에서도 北韓처럼 住民의 成分構成이 「複雜」한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北韓에서 말하는 「複雜한 群衆」중에 「宗派分子」와 右綠類가 유난히 警戒되고 있다는 事情은 우리의 各별한 注意를 끌게한다. 그 「宗派分子」란 原則的으로 말해서 成分規定도 가장 優待될 「革命者」에 屬할 사람들인데, 일단 金日成 一派 相對의 党内論争에 지고나면 一丈千落의 悲運을 맞이한 꼴이다.

요컨대 北韓住民의 成分構成에서는 疎外階層이 多數者이며 「基本成分」이란 数字的으로 極少數에 不過하다. 이로부터 우리의 對北 心理戰은 北韓의 多數疎外層을 對象으로 明白히 設定할적에 가장 効果的일 수 있다는 結論이 導出된다.

아울러 그곳의 參與階層이 라해도 党 및 政權機關의 高位 幹部 陳을 形成하는 이른바 「動勞인텔리」중에는 北韓이 時代進運을 外面하는 限 끝내 潛在的인 「宗派分子」性向이 가셔지지 않을 것이며 이또한 우리의 對象分析에서 重要한 關心處가 아닐 수 없다.

第二章 各階層의 意識構造와 對象別 呼訴의 方向

- 對北心理戰의 對象分析 (II) -

I. 北韓의 「核心群衆」

무릇 特定地域의 住民들이 그 政治体制에 대하여 協和感 또는 「우리 意識」을 가다듬게 되는것은 政府의 單純한 大義名分 宣傳만으로는 不足하다. 社會經濟的 受惠意識이 定立, 最少限의 利害一致가 必要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政權에의 參與 可能性이 自己나 子女에게 制度的으로 保障되어야만 積極的인 支持의 安定된 調達을 期待할 수 있는 법이다. 共產黨도 끝내 抹殺하지 못한 個人의 主体意識도 「인텔리」의 경우에는 無視할바 아니다.

北韓의 「프롤레타리아 獨裁」下에 當局의 階級路線이 硬直性을 띄고 住民들간에 「複雜한 群衆」成分이 多數를 차지하는 狀況下에서는 體制觀의 「面從服背」現象이 적잖게 不可避的이라고 測定된다. 다만 一般群衆은 散漫한 想念의 斷片들을 整理 못하고 있으며 態度와 行動에서 이렇다할 嚮導를 얻지 못하고 있는 爽情이다.

勿論 그들의 意識構造는 階層과 処遇따라 한결같 지 않지만 規格化된 劃一的 閉鎖社會라는 生活環境으로 말미암은 共通性이

있다는 側面도 看過할 바 아니다. 對北心理戰의 呼訴에서 普遍性
과 特殊性의 調和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우선 北韓當局의 徹底한 階級成分 分類가 招來한 社会的衝撃을
念頭に 두면서 對北心理戰의 階層別 呼訴의 存在樣式을 考察하고자
한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그들은 全住民을 「基本群衆」과 「複雜
한 群衆」으로 大別하되 그 「基本群衆」을 다시 「核心群衆」과
「基本成分」으로 分類한다고 한다. 그 「核心群衆」에 관하여
1972年 憲法 第61條는 「革命鬪士, 革命烈士家族, 愛國烈士家族,
人民軍隊 後方家族, 榮譽軍人들은 國家의 극진한 保護를 받는다」
고 했다.

얼핏보아 이들 「核心群衆」이란 北韓의 最大受惠層이며 骨髓分子
여서 우리측의 影響力있는 呼訴는 전혀 不可能視될 것 같다. 사실
敎養水準이 형편 없으면서 出身成分만 좋은 가운데 「核心」으로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온갖 呼訴에 대하여 信念的인 拒否反應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인텔리」出身의 「革命鬪士」의 경우에는 事情이 簡單
치않다. 가령 1956년에 北韓版 「反스탈린」運動을 벌이면서
金日成個人崇拜體制를 改革하려했던 崔昌益, 尹公欽등과 같은 黨幹
部 들이라든지, 1958년에 北韓版 「自由化運動」을 副策하다가
역시 肅清된 金科奉, 韓 斌, 金乙奎 등은 本來의 成分上 「革命
鬪士」에 該當되는 「케이스」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排斥

당하는 成分 즉 「宗派分子」로 指目되고 있는 形편이다.

그러한 「인텔리」出身 「革命闘士」인 高位党幹部는 지금도 北韓에 적잖게 生할 수 있다. 하기야 그들은 金日成이 健在하는 동안에는 어떤 「異色的」行動을 취할 可能性이 매우 稀簿하다.

그러나 個人独裁者가 生理的으로 退場하는 날이면 어차피 必然視되는 集團指導体制속에서 날로 獨創力있는 發言을 增大시킬 것이 豫想된다. 그와 같은 事態進行은 「스탈린」死後의 蘇聯을 包含하여 東西古속에 거의 例外없이 觀察되어온 바이다.

北韓의 高位党幹部사이에 蔓延된 不安과 恐怖心理에 관해서 金日成자신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우리党的 10餘年間的 鬪争經驗에 의하면 宗派分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어도 党을 疑心하고 党에 속을 주지 않습니다.

류측운 같은 사람은 왜 自己를 相을 시켰는가 하는 것 까지 疑心했습니다.

내가 최창익과 金雄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疑心病이 그렇게 많은가?』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金雄에게는 『당신이 參謀長으로 있지 前線司令官을 했지 무엇 때문에 우리党的 당신을 信心하지 않는가 해서 밤낮 疑心하는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노여워하는가 党에서 會議가 緊張한가 자기 問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옆에서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자기 問題가 아닌가 해서 눈이 둥글레 집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批判해도 자기 옆구리가 찢려서 후다닥 됩니다. 宗派分子들은 모두

가 다 이모양입니다.」 (金日成選集, 제 5 권, 385 面).

北韓에 成分 좋기로는 으뜸가는 「革命闘士」요. 오늘의 高位党幹部들이 「스탈린」主義 個人崇拜体制下에서 겪고 있는 心理的 不安 狀態를 能히 짐작 할 수 있겠다.

그들에 대한 우리측의 心理戰的 措置는 直接的, 短期的인 呼訴보다도 次元 높은 長期的 布石이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또 그들은 바쁜 몸이지만 家庭에서 南韓放送을 自由로이 聽取할 수 있는 限定된 受惠層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자긍심과 人間性에 대한 呼訴를 着想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北韓社会뿐만 아니라 南韓社会에도 「著名人士」이며, 高次元의인 民族運命打開을 위한 協調의 期待感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北韓社会의 深夜歸家層인데 具體的으로 우리가 指名한다면 家族들이 放送을 聽取했다가 伝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北韓의 「革命闘士」水準 高位 党幹部들에 대한 呼訴는 長期的布石으로 次元높은 內容을 담아야 할 것이다. 東歐의 經驗에 비추어 보더라도 反「스탈린」的 改革과 「自由化」運動은 萎縮된 大衆보다도 党幹部에 의하여 發動된바 많았던 것이다. 하기야 그들은 「民声」에 보다 銳敏했을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은 東歐와는 달리 蘇聯의 影響力만 받는 것이 아니라 中共이라는 制要因이 交錯되는 地域이다.

그러기에 北韓의 内部變化는 中·蘇紛糾에 힘입어 内政干涉없이 보다 더 自主的으로 進行될 可能性이 길다고 觀測되기도 한다.

北韓의 이른바 「宗派分子」温床은 다른아닌 高位党幹部層이었던 것이다.

II. 勞動階級과 農民階級

一般的인 「基本成分」 즉 「勞動階級」과 「農民」 그리고 「勤勞인텔리」의 경우도 問題狀況은 결코 單純치 않다.

金日成자신 1970年 11月2日 『조선 勞動党 第5次 대회에서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에서 그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勞動階級」의 構成自体가 複雜한 것이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勞動階級은 靑少한 勞動階級이며 그 發展에서 一聯의 特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數的으로 그리 많치 못하였던 우리나라 勞動階級の 隊列은 解放後 工業이 飛躍的으로 發展하는데 따라 짧은 期間에 갑자기 많이 늘어 났으며 여기에는 革命的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날의 農民, 小作人, 手工業者들과 새世代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黨은 勞動階級속에서 革命化하기 위한 鬪爭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결국 北韓의 勞動階級은 스스로 革命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부터의 革命」에 의하여 組織化되었을 따름이다. 「階級意識」과 一体感이 貧困한 것이다. 하기에 金日成에 의하여 「朝鮮革命的 領導階級」이니 「나라의 主人公」라는 思想教養을 받고 또 相對的으로 優待받는 成分임을 自我發見하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결코 過小評價되지 않는다. 北韓政權에 대한 忠誠階級이라고 보겠는데 다만 金日成集團의 勢力이 優勢하다고 느끼면 勇躍하겠지만 勢不利가 드러나면 개중에 「逃避分子」가 적잖게 發生되리라고 豫見된다.

그들 北韓의 勞動階級에 대한 平時 呼訴는 南韓의 勤勞者들이 보다나온 物質, 文化生活水準을 누린다는 紹介밖에 단 道理가 없을 것이다. 戰時라면 北韓의 敗勢를 알리는 宣傳攻勢가 自動적으로 그들간의 상당한 龜裂을 明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그들은 勞動赤衛隊의 核心을 形成하고 있다.

다음 北韓의 農民에 관하여 金日成은 「우리 農民은 주로 지난 날의 貧農과 中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들 속에는 小所有者的 根性和 利己主義를 비롯한 낡은 思想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고 했다. 그래서 朝鮮勞動黨은 農民을 勞動階級化하고자 「思想敎養事業과 組織生活를 強化하고 社會主義的 共同勞動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農民들을 각종 「學習會」에 網羅하고 「農業勤勞者同盟」 등 組織의 그물에 얽어 놓았으며 또 「農協」이라고 이름하는 集團農場에 編入함으로써 과연 그들의 思想意識改造에 어느 정도 寄與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自信」의 根拠가 北韓當局에 의하여 자랑된바는 없다.

원래 北韓뿐만 아니라 各국共產主義者들은 한결같이 農民固有의 「小所有者的 心理와 個體經理意欲」이니 「散漫性과 非組織性」을

云謂했으며 이들을 「非社会主義的成分」으로 蔑視하다 싶이 했던 것이다. 다만 後進農業社会에서 農民을 排斥하고 極少數의 勞動階級에만 依拠하다가는 革命이 卓上空論化하게 마련이므로 「레닌」에 이르러 「勞農同盟」이라는 戰略的口號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後에 中共의 毛沢東은 貧·雇農에 의거하는 「土地改革」으로 「人民解放戰爭」을 勝利로 이끌기도 했다.

中共은 土地改革의 惠沢을 입은 多數의 貧·雇農들로 하여금 分配配받은 土地를 保衛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鬪爭意識으로 끌고가면서 群衆路線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革命」을 農村에서 昂揚케 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中共党中央委의 1953年12月 決議는 「農民이 私所有者이며 農産物의 販賣者라는 性格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個人經濟에의 熱望은 農民의 自然發生的인 傾向이 資本主義임을 나타낸다」는 警戒心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실 中共의 農民은 「個人主義的 小所有者意識」의 形成과 「社會主義的 勤勞者意識」이라는 兩極의 葛藤을 免치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毛沢東은 1958年부터 「人民公社」運動을 強行하면서 「社會主義的 勤勞者意識」의 成長을 自讚했었는데 그 人工的 措置가 砂上樓閣에 不過하다는 것이 判明되는대는 오랜 時日이 必要하지 않았다. 즉 1959年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農業生産의 破綻을 거쳐 中共이 尤 소기 陣頭指揮下의 「調整期」에 드러서자마자 廣大한 農民사이에서 「個人主義的 小所有者意識」이 急速히 蘇生되고 말았던 것이다. 드디어 毛沢東은 1966年부터 本格化한 「文

文化大革命」으로 유소기路線을 排斥, 農村의 「資本主義復活」傾向에 대하여 거듭 宣傳을 布告한 꼴로 되었다. 하지만 그 文化大革命은 지금껏 完結되지 않았으며 中共은 現時點에서도 漫性的인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과 對比해 볼 적에 北韓의 형편은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農民工作의 潛在的 不安定要因은 巨視적으로 보다 深刻하다고 視測된다. 우선 北韓은 中共의 執權過程에서 보는 바와 같은 農村에서의 「群衆發動」이 未洽했으며 農民에 의한 人民解放戰爭도 展開된바 없다.

그리고 北韓에는 解放前에 農業勞動者라고 일컬을 만한 「雇農」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土地改革의 受惠層은 貧農뿐이었는데 그 數도 中共과 比較하면 全人口中 比率이 적었다. 勿論 이들 貧農은 北韓當局에 의한 地主土地沒收와 그 土地의 無償分配로 땅을 갖고 싶었다는 世紀的宿望이 일단 이루어진 것 같았다.

이어 그들은 「地主로 부터의 報復」에 對備해야 한다는 共產黨 宣傳을 들게 되었으며 組織生活에 빠짐없이 網羅되고 말았다.

끝내 到來한 幻滅의 悲哀는 農村集團經理下의 共同耕作과 勞力點數制에 따른 收穫分配였다. 지금껏 貧農의 꿈은 土地改革 直後의 個人經營을 되새겨보는 鄉愁일 것은 測定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만 北韓의 貧農層은 平壤當局의 宣傳 때문에 南韓의 農村은 아직도 「封建地主의 壓制」下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있고 또 北韓의 地主成分이 대부분 越南해 있다는데서 「北進」에

관한 造作宣傳에 微妙하게 反應할 可能性이 زیاد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北韓의 「貧農」出身成份에 대한 우리측 呼訴는 무엇보다도 北韓當局의 歪曲, 造作宣傳에 對抗, 南韓農民들의 普遍的生活向上과 「새마을運動」의 成果를 널리 紹介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附言한다면 종전에 우리측 對北放送이 反共思想을 鼓吹시킨다는 標榜下에 地主層에 대한 北韓當局의 無差別的 迫害를 主題로 삼은 바 있었던 것은 止揚되어 마땅하다. 心理戰的 視角에서 목적에 對象없는 「無的放失」的 浪費였으며 더욱이 北韓 貧農出身層에 대해서는 엉뚱한 對南警戒心이나 刺戟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北韓의 地主, 富農은 越南했든지 아니면 北韓當局에 의하여 山間僻地로 強制移住당한채 社会的으로 去勢되었으며 對北放送등 「뉴스」源으로부터 完全히 封鎖되어 있는 事實이다.

北韓의 中農은 土地改革의 受惠者가 아니면서 결국은 抱撰對象으로 看做되어 왔다. 원래 北韓에서는 解放前부터 中農(自作農)의 人口比率이 컸으며 端的으로 적잖은 마을에서는 草家집보다도 기와집이 많았던 것이다. 어쨌든 그 中農은 土地改革에 즈음하여 地主와 富農階層의 破滅을 對岸의 火災視할 수 밖에 없었으며 共產黨의 威脅下에 「中立」을 지킬 수 밖에 無 道理가 없었다.

그리고 中農은 共產黨이 強化한 農村經理集團化 時期에 이르러 獨立性守護를 애써왔던들 벌써 때는 늦었고 同盟者를 전혀 發見할 수 없는 処地에서 결국은 貧農과 더불어 集團農場과 無 差別的

農業生産協同組合의 組織網에 編入되고 말았다. 組合과 里單位의 初級黨 및 末端行政機構의 幹部職은 成分이 좋다는 貧農에 의하여 独占되다 싶이 했으니 짙은 疎外感을 免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요컨대 中農은 對北心理戰이 먹혀들어 갈 수 있는 北韓農村의 가장 좋은 階層的地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 중에는 宗敎信者들도 적지 않다. 다만 우리의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부터 完全히 遮斷되었다는데 難點이 있다.

Ⅲ. 北韓의 「兵士」層

「兵士」는 北韓憲法에 의하여 勞動者, 農民 다음의 順位에서 「主權者」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多分히 士氣鼓舞를 위한 象徴的規定이라고 볼 것이다.

앞서 引用한 金日成報告는 「軍隊에 대한 黨的領導를 強化하는 것은 革命武力建設에서의 基本要求」라고 強調했다. 또 그 「黨的領導」의 實踐形態는 「人民軍隊의 모든 事業이 黨委員會 指導밑에 組織, 執行」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具體적으로 말한다면 軍事幹部(作戰指揮官)보다도 「政治委員들의 役割을 높여야 하겠습니까」는 불어로 된다.

그것은 人民軍隊 單位部隊의 二元制 指導體制下에서 發生하는 온갖 葛藤이 部隊長(作戰, 行政責任者)를 監視하면서 黨을 代表하는 政治委員 本位로 解決된다는 뜻이다. 黨的領導가 保障되는 다른 한편에 있어 冬級部隊長들의 不平, 不滿情緒가 潛在적으로 울적되리

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人民軍隊內的 그와 같은 알력에 대하여 金日成은 1969年 1月에 열린 「朝鮮勞動黨 人民軍黨委員會 擴大全員會議」에서 한 結論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고 한다.

「政治部가 自己系統으로 報告도 못하게 하고 參謀部를 통하여 報告하라는 犯罪的行動을 敢行하였다. 崔光을 비롯한 일꾼들이 多責任을 져야 한다. ……今後 모든 命令書에는 軍事幹部 혼자서 싸인하지 못하고 政治委員이 싸인을 해야 効力을 發生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水準에서 꼭 해야 한다. ……… 師團長이나 聯隊長, 司令官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官僚主義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偏向인가…… 政治일꾼들이 뒤를 따르는 것은 당신네 官僚主義를 파는 것이지 다른것이 없다..」

「人民軍隊」내 軍事幹部와 政治委員들 간의 反目 알력은 北韓이 蘇聯과는 다르고 中共과 마찬가지로 二元制를 固執하는 동안 앞으로 不可避的이라고 느껴진다. 나아가서 裝備와 訓練은 蘇聯式인데 黨的領導는 中共式이라는 矛盾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의 心理戰的 呼訴는 主로 軍事幹部들의 不平情緒에 어울리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IV. 北韓의 「인텔리」階層

「인텔리」問題에 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원래 인텔리는 하나의 社會階層으로 搾取階級에 服務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勞動階級에도 服務할 수 있는 二重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인텔리들은 거의 다 富裕한 家庭의 出身으로서 지난날 搾取社會에 服務하기는 하였으나, 植民地 半封建社會의 인텔리로서 日帝의 民族的 抑壓과 差別的 待遇를 받아 왔기 때문에 大部分 反帝思想과 民主主義的 革命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黨은 勤勞人民 出身의 새 인텔리들을 大次的으로 길러 내는 한편 오랜 인텔리들의 이러한 特性으로 부터 出發하여 그들을 積極 改造하는 方針을 내세우고 꾸준히 教養하여 왔습니다.

그는 이어서 「낡은 思想殘滓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단결될 機會가 적은 「인텔리」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려면 「思想教養과 革命的組織生活」을 통하여 그들의 個人主義, 利己主義, 事大主義, 教條主義」를 克服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서 「우리의 經驗은 오랜 인텔리들을 利用할 뿐만 아니라 教養改造하여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者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고 自畫自讚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解放後 상당한 期間을 두고 「낡은 인텔리」나 「旧知識分子」나 하는 呼稱을 쓰다가 최근에는 金日成報告에 보듯이 「오랜 인텔리」로 議稱된 것이다. 그 「오랜 인텔리」들은 共産黨이 技術幹部와 知識幹部의 不足을 痛切히 느끼던 條件下에 一時「利用」되다가 純全히 共産治下에서 教育된 「새 인텔리」들이 大量 養成되는데 따라 弊履처럼 저버리게 될 것이 豫見되었었다.

成分이 나쁘고 「낮은 思想殘滓」에 물들었다는 것이 理由로 看倣되는 形편이었다.

한편 「인텔리」들이란 「이데올로기」的 信條를 위해서는 自己의 出身階級이나 本人自身の 利益을 주저없이 超越할 수 있는 唯一한 階層이다. 그러한 터에 出身家庭의 沒落·肅清에 결들여 그들 自身마저 아무리 奉仕하려 해도 成分關係로 白眼視되어 왔던 것이다.

그들은 北韓社會에서 좌절감을 免치 못했으며, 일부 党幹部로 昇進한 層을 除外하고서는 더무니 없는 억울을 참아야 했었다.

實情이 그러한데도 金日成은 「思想敎養」을 말했으니 이 內容은 되풀이 말에 대한 傾聽이고 또, 「革命的組織生活」이란 恐怖體制속의 順從訓練을 의미하기 일 수 었던 것이다.

요컨대 北韓의 「오래 인텔리」란 解放前부터 共產主義運動에 從事했던 若干을 除外하고서는 좀처럼 「改造」될 수 없는 存在이다.

그 「動搖」와 「苦悶」은 對北心理戰의 主要한 對象중의 하나임을 생각케 된다. 自由와 人權, 超階級的인 民主主義의 實証이 南韓에 健在하다는 것을 認識시키는 것이 呼訴의 으뜸가는 內容으로 귀 되어야 할 것이다.

V. 疎外된 「複雜한 群衆」

北韓의 「複雜한 群衆」 또는 「나쁜 成分」중 으뜸가는 要因은 地主와 富農이다. 다만 그들은 極少數만이 北韓에 殘留했을 뿐인데다가 그나마 山間僻地등에 事實上의 流配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對北心理戰의 뚜렷한 呼訴對象이 될 수 없다.

「資本家」로 말하면 더구나 解放前부터 그 數호가 보잘것 없었다. 이 가운데서 共産黨이 말하는 「隸屬資本家」는 재빨리 「親日派」라는 規定下에 收奪당하고 만 것이다.

「中小商工業者」로 말하면 「民族資本家」와 더불어 北韓에서도 상당한 期間을 두고 露骨的으로 敵視되지는 않았다. 1945年부터 1955年에 이르는 期間은 이른바 「反帝·反封建 民主革命」時期였기 때문에 共産黨도 商工業 收奪을 그다지 서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55年부터는 「社會主義 基礎建設」期가 到來하였다. 이 무렵부터 商工業者들은 共産當局이 賦課한 破滅的인 重稅에 못이겨 자신의 業體를 困營으로 넘겨주었고 혹은 각종 名目으로 督促되는 「愛國的 獻納」運動에 휘발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그들의 相當敎는 國營商店 또는 消費組合 등의 從業員으로 되어 있거나 手工業者들의 경우는 각종 工場의 勞動者로 轉身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勿論이 「中小商工業者」成分은 이러저러한 緣類로 「越南者家族」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極少數나마 그렇지 않은 경우라해도 獨立的인 生業營爲에 대한 鄉愁는 좀처럼 가셔지지 않을 것이다.

「越南者家族」은 北韓의 「複雜한 群衆」에서도 大宗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 數호가 各階各層에 걸쳐 너무 많기 때문에 共産黨도 이들을 도매금으로 排斥하지는 못한다. 大體로

越南者家族임을 共産黨앞에 率直히 告白하고 越南한 緣類와의 絶緣을 宣言하면서 忠誠을 背치면 無難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広義의 「監視対象」인 셈이다. 그러다가 어떤 「過誤」 또는 北韓當局에 대한 誹謗등이 摘發되는 날이면 곧바로 「反動」規定을 받게 된다고 한다. 어차피 「越南者家族」의 絶大多數는 억울한 翁다리生活을 免치 못하는 身勢이며 恆時 南韓의 情勢에 대한 鋭敏한 感受性を 지니고 있다.

越南者家族과 中小商工業者出身에 대한 우리의 呼訴內容은 그들의 동경심을 喚起시키는 方向을 設定할 때 상당한 效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期待된다. 南韓의 繁榮相, 越南者の 成功譚 및 在北同胞들에 대한 不斷한 關心이 그 內容으로 되어야 한다.

北韓에는 敎會다운 敎會와 寺刹다운 寺刹이 단 하나도 없다. 그리하여 宗敎人들은 徹頭徹尾 信念있는 反共人士로 남는다. 北韓當局은 또 「宗敎人」을 「反動團體加担者」, 「前職者」, 「逃避者」 「宗派分子」와 함께 露骨的으로 敵對視하며 이른바 「獨裁對象」으로 取扱한다. 그들 모두에게 있어 北韓은 想像을 絶한 重勞動과 屬奪의 生地獄이다. 하지만 이들은 所謂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暴力手段에 의하여 급격히 隔離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對北心理戰의 說得對象이라기 보다는 解放對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의 「歸還兵」(6·25 포로出身)은 「出所者」(前科者)와 마찬가지로 「罪質」에 따라 敎養對象과 監視對象으로 区分된다지만

그 限界가 流動的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쨌든 그들은 오랜 시달림 속에 共産当局의 奸巧한 限界狀況 心理操作까지 겪게 되었으므로 道義的支柱가 없으며 對北心理戰의 眞摯한 呼訴對象으로는 되지 못한다.

VI. 北韓의 「새세대」問題

끝으로 北韓의 「새세대」에 대한 心理戰的 「어프로우치」가 우리의 主要한 關心事의 하나로 提起된다. 勿論 그들은 社会的으로 獨立한 階層이라고 看做되지 않지만 感受性과 意識構造面에서 既成世代와는 同一視될바 아니다.

南韓일부에 流布된 常識論에 의하면 北韓의 새세대는 그 閉鎖社會에서 오직 共産主義敎育만 받아왔기 때문에 「思想武裝」이 鉄石같은 것처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見解는 理論과 實際의 兩面에 걸쳐 根拠가 薄弱한 것이다.

우선 人間의 人格形成과 價值觀 내지 世界觀의 定立은 결코 學校敎育만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敎育 및 家庭敎育의 三位一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共産黨도 學校敎育만에 自足하지 않고 그토록 「成分 따지기」에 執念하는 癡癖이다. 가령 學校에서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敎育을 注入받았다 라더라도 家庭에 돌아와서 父母나 祖父母들이 金日成을 「족 將軍」이라고 부르며 生活水準이 「日政보다도 못하다」고 誹謗하는 말을 들게 되

면 事情이 달라진다. 이어서 그 靑少年은 自己의 눈으로 社会現實을 보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實際로 蘇聯의 經驗을 보더라도 2次大戦當時 对独戰線에 動員된 젊은 兵士들은 바깥 世界를 전혀 모르고 오로지 「스탈린」体制下의 共產主義教育만 받아온 靑少年들이었지만 戰爭의 初期에는 共產党的 利益을 위해 無意味하게 戰死하기 보다는 오히려 「文明国」視해온 独逸편에 投降하는 길을 揜했던 것이다.

그 후 「히틀러」 独逸이 「슬라브族」을 蔑視, 奴隸化하려 한다는 事實이 判明됨에 이르러 態度가 달라졌던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北韓의 경우 비록 「基本成分」出身의 새 世代라 해도 모두 「骨髓分子」아님은 우리의 經驗이 또한 立証하는 바이다. 1·21 事態때 共匪로 南派되었다가 결국 우리측에 帰順한 金新朝靑年은 그야말로 出身, 社会成分에서 北韓에도 흔하지 않은 「純粹한 基本成分」이었으나 우리측 軍醫이 包圍하자 「紳士的으로 합시다」고 말하면서 投降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紳士的」이란 말은 北韓의 辞典에 없는 어휘이다.

그런가하면 北韓当局은 오늘날 蘇聯, 東歐圈에 人文·社会科学系統의 留學生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修正主義」와 自由化에 물든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北韓이 基本成分을 추려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보냈던 留學生들은 社会, 自然科学系를 莫論하고 그 大多数가 帰国조차 拒否했음이 判明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實情으로 미루어 北韓의 새 世代는 우리의 對北心理戰의 主要한 對象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들에 대한 呼訴에서는 豊富하고 生新한 「比較」資料의 提供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第三章 南北心理戰의 生活科學的側面的 考察

I. 氣象으로 본 遠心求心作用

1900년 英國의 地政學者「맥켄지」는 「런던」에서 열린 大英 地理學會에서 주목할만한 보고를 했다.

「地球上의 勢力圈은 셋으로 나눌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大陸圈과 英國, 日本, 濠州동의 섬나라들을 연결하는 海洋圈과 南北美洲를 연결하는 半大陸, 半海洋圈이 바로 그것이다.」

「맥켄지」教授의 이런 學說에 따라 英日同盟이 실현되고 장차 獨逸의 「히틀러」가 「유럽」制壓을 꿈꾸게된 것이다.

「맥켄지」學說은 그후에도 國際航路開設의 한가지 枝節이 되고 있는데 韓半島의 경우 그의 學說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韓半島는 三面이 바다로 에워싸인 「아시아」大陸의 一角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白頭山의 天地에서 東西로 흘러가는 豆滿江과 鴨綠江을 굽이 바다로 연결되는 江川으로 重視하자면 韓半島는 四面이 水域으로 싸인 海洋圈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지 않을까.

大陸圈으로서의 韓半島, 海洋圈으로서의 韓半島 그리고 半大陸, 半海洋圈으로서의 韓半島가 지닌 地政學的 潛在性은 자못 複雜하다 아니할 수 없다.

蘇, 中 共와 美, 日의 逐角場으로 바뀐 韓半島의 政治적양상, 經濟적양상에서 南北韓이 대립된채 三大勢力圈의 接境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7年間の 隔離 끝에 72年의 7.4 共同声明으로 對話의 길이 트 이기는 했으나 南北韓住民들은 生活科學的인 측면에서 두두러지게 다른 서로의 모습을 窺見하고 그러한 差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와 씨름하게 됐다.

먼저 氣象學上으로 살펴보면 南韓이 颱風圈內에 늘 놓여있음에 반하여 北韓은 덜하다. 颱風은 비, 바람을 수반하는 까닭에 이것을 풀이하자면 颱風이 가장 심한 日本의 경우, 年間降雨量의 平均은 1,300「밀리」이고 韓半島는 그 절반인 1,600「밀리」, 滿洲는 다시 그 절반에 해당하는 900「밀리」정도이다.

降雨量이 많고 적음은 바로 農業을 비롯한 온갖 生活構造에 영향을 줌으로 多濕한 南韓이 多樣性을 갖게되는 반면에 덜濕한 北韓의 生活環境이 저절로 單調롭게 되는 일은 生氣學上의 결론이다.

南韓의 年平均降雨量이 1,900「밀리」라면 北韓의 그것은 1,200「밀리」에 지나지 않다. 700「밀리」의 差異는 비단 產業의 일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에렌, 모건」은 이러한 差異를 그녀의 「女性의 起源」에서 遠心性和 求心性으로 비유하고 있다.

「遠心的인 社會形態의 例로서 자주 引用되는 동물은 「파터스」 원숭이이며 求心的인 例로서 인기가 있는 편은 猩猩이다. 그들을 따로 따로 나누고 있는 要素는 危險에 대한 그들의 反應이다 「파터스」 원숭이는 허허벌판에 발을 딛게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노상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기가 걸어온 길이 後退할 적에도 막혀있나 않나를 일일이 확인하며 유사시에 올라갈수 있는 나무가 있지않나 하고 눈을 두리번 거린다.

색다른 음성을 들을 적에는 쏘살같이 나무가 있는 쪽으로 무리 전체가 四散해서 安全을 취한다.

그러나 狸狸의 경우는 正反對로 주변의 환경에는 별로 조심하지 않고 平原에서 敵을 만났을 적에도 弱者를 逃避케하고 首領格은 홀로 남아서 으르릉댄다.

이처럼 「파터스」 원숭이가 遠心的이고 狸狸가 求心的이라면 거기에는 多濕과 乾濕의 差異가 원시시대부터 由來된 것이다. 1)

多濕과 乾濕이 동물에 영향을 끼치는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潛在的으로 人間의 心理에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乾濕의 求心的경향은 水素爆彈과 같은 無偏差方式의 信號를 자아내고 多濕의 遠心的경향은 月着陸과 같은 快樂方式의 信號를 자아낼 수도 있다.

氣象과 地政學上的의 進化過程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要因이 韓半島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면 北韓의 乾濕과 南韓의 多濕은 專制主義와 民主主義의 風土的인 由來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註 1) The Descent of Woman (Elaine Morgan, Charles E. Tuttle Co. 1972. pp. 223)

로 생각된다.

II. 色彩의 心理分析

여러차례에 걸친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平壤會議를 통하여 北韓의 女性들의 옷빛깔이 검정 치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事實은 心理戰의 性格分析上 重視해야 한다.

參考삼아 우리나라의 色彩變遷史를 간추려보기로 하겠다.

新羅時代에는 唐나라와의 修交를 통하여 들어온 敎文化가 隆盛해서 新羅人들은 대체로 잿빛(灰色) 옷을 입었었다. 잿빛은 僧衣의 상징이요 또한 染料가 개발되지 못한 까닭에 재로서 옷감을 염색한 것이며 土器도 대개 잿빛으로 물들었었다.

그런던 것이 高麗時代로 접어들자 나라색을 靑색으로 통일해 버렸다. 新羅의 잿빛을 일상생활에서 이어받으면 心理적으로 旧官이 名官이라는 식의 회고조가 유행하기 쉽기때문에 高麗의 支配層은 靑색을 개발한 것이다.

하루에도 두서너번씩 밤상에 오르는 그릇에 새로운 王朝風을 곁들이기 위해서 이른바 高麗靑瓷를 개발하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모시옷도 靑색으로 염색했다.

그러나 李朝로 접어들자 새로운 支配層은 新羅에 대한 高麗王朝의 考慮와 마찬가지로 나라색을 白色(白色)으로 바꿔버렸다. 이 무렵만해도 棉花가 栽培되어 무명옷을 입게 되니 옷감을 漂白해서 입게 되고 그릇의 빛깔도 李朝靑瓷로 상징시켰다.

이상과 같은 韓半島內的 變遷과는 달리近代的인 染料의 技術은 英國에서 비롯되었다.

英國의 東印度会社는 印度로 진출하자마자 더없이 풍부한 綿花와 靑色染料의 主役인 大靑草의 앞사귀에 주목하게 되었다. 大靑草의 원산지는 中國이며 아시아大陸에 널리 分布하고 있는 天然染料의 원료이다. (옛中國이 옷빛깔을 靑色으로 물들인 것도 바로 大靑草가 손쉽게 入手되었기 때문이다).

大靑草의 앞사귀를 갈아서 물로 반죽을 해서 죽처럼 빻어놓으면 空氣중의 酸素의 영향으로 발효하여 靑色染料-「인디고」를 얻을 수 있다. 18世紀末에 英國에서 産業革命이 일어나자 印度의 「인디고」풀이 대량으로 「유럽」에 流入, 섬유産業의 발달과함께 「인디고」染料는 英國에 막대한 利潤을 안겨주었다. (英國水兵의 制服도 이 무렵부터 靑色으로 물들이게 됐다).

한편 赤色染料는 쪽두서니풀에서 抽出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리자닌) 染料이며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栽培되어 「프랑스」의 「아리자닌」染料가 「유럽」을 支配했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將兵의 바지빛깔을 赤色으로 정함으로써 쪽두서니栽培業者를 보호했던 것이다.

獨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쪽두서니풀과 大靑草를 栽培하여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프러셔」軍의 制服을 靑色으로 정했었다. 2)

註2) 技術, 革新への道 (講談社刊, 1963・pp.120)

「유럽」의 染料變遷은 그후 化學의 발달로 石炭의 찌끼기 「탈」로부터 合成染料를 抽出하게 되어 온갖 빛깔을 얻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빛깔이 사람의 心理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되기 시작했다.

흔히 붉은색은 情熱을 뜻하고 노랑(黃色)은 平和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赤色과 靑色은 이미 흠어본 바와같이 「유럽」의 産業革命을 상징하는 두가지 빛깔이다. 아시아의 側面 특히 韓半島의 경우는 대중생활에 있어서 赤色과 靑色은 생소하다.

北韓이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차림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면 南韓으로서는 무슨 빛깔로 그들의 閉鎖性을 풀어줄 것인가

1960년대부터 宇宙空間에까지 등장한 진노랑(眞黃)색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에베레스트」探險隊들은 白靄의 山岳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빛깔로 진노랑색의 옷빛깔을 택하고 있다. 이 빛깔은 사람의 視界에서 가장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色彩이며 無理가 없는 波長이다.

이와 비슷한 原理에 따라서 人工衛星이나 달 「로켓」로 宇宙旅行을 하는 비행사며 「파라슈트」는 모조리 진노랑색을 택하고 있다.

北韓의 검정색은 閉鎖的인 社會의 상징이며 想像力을 阻止하는 빛깔이다. 장차 平壤을 방문하게 되는 우리측 代表團이나 記者團이 진노랑색의 「코트」를 입고간다면 心理的으로 상대방에게 큰 衝擊을 줄것으로 안다.

平和의 象徴이요 宇宙時代의 빛깔인 진노랑색에 대한 전문적인
分析은 對話時代에 있어서 우리측에 크게 利로울 것이다.

Ⅲ. 服裝이 活動에 미치는 影響

板門店에 나타나는 北韓記者들의 洋服은 모두가 既成服차림이다.
1959년에서 60년에 이르는 동안 筆者는 네차례에 걸쳐 軍事停戰
委員會를 取材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시골의 面書記와같은 옷차림의 北韓記者들에게 물어보았
다.

「여보시요! 집에 부인이 있을텐데 왜 옷을 고쳐입지 않소?
아무리 기성복 일지라도 자기몸에 맞게 고쳐입어야 할게 아니요?」

「아무려면 어떻소. 옷이 문젍니까」

北韓記者들은 말꼬리를 으레 흘려버려곤했다.

그들이 입고있는 洋服의 빛깔도 데게가 잿빛이며 우중충하다. 반
반면에 「人民軍」軍官들이 입고있는 制服은 꼭 몸에 맞았기 때문
에 팽팽하다. 이러한 對照속에서 엿볼수 있는 일은 「軍이나 民
間人」에게 전혀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北韓記者들은 또한 南韓記者들이 입고간 「T셔츠」에 好奇心의
눈초리를 보내는 일을 本記者는 목격할 수 있었다.

「T셔츠」는 內衣중에서도 가장 活動的인 모습을 내보이는 켤이
다. 南北對話가 시작된이래 여러차례 서울을 訪問한 北韓記者들의

內衣에서 「T셔츠」를 발견할 수 없었던 事實은 그들의 消費生活
이 多樣하지 못하는 증좌이다.

北韓記者들이 흔히 쓰고있는 이른바 「레닌」帽라는 「캡」에도
문제가 있다.

金日成의 生涯를 간추려보면 自明하다

「当初의 <金日成部隊>의 編成年間은 大体로 1930년대 초로 되
어 있지만 組織的 遊擊活動部隊로서의 面目을 갖추게 되는 것은
1935년 8월 이후부터의 일이다. ……金日成部隊는 延吉和竜地域에서
長白峯에 이동하여 咸鏡南北道, 平安北道등 韓滿國境지대를 遊擊活動
根據地로 삼고 抗日遊擊戰을 전개하였다. ……1941년 이후는 金日
成部隊의 活動도 大体로 宗旨을 감추게 되고 蘇聯領에 逃避하여
「구로데코프」 및 「하바로프스크」의 蘇聯軍部隊에 편입되어 訓
練을 받았다고 한다……1942년 初頃부터는 極東의 民族部隊가 獨.
蘇戰線에 動員投入되었을 때 金日成部隊는 獨立狙擊民族大隊의 中隊로
로서 「스탈린그라드」攻防作戰의 第一線에 投入되어 1943년 2월
까지 戰鬪參加하였고 金日成은 그 功績으로 階級이 大尉(中隊長)
에서 少領으로 進級했다고 한다. 그후 各 戰場을 轉轉하면서
1945년 4월의 「벨린」攻略戰에도 參戰했으며 얼마뒤에는 極東에
移動하여 「구로데코프」에 駐屯 대기중 蘇聯이 對日參戰하자 約
300명의 部隊員을 帶同하고 特務工作要員으로 蘇聯軍 進駐時에 入
北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註3) 研究論叢第13号(國際問題研究所刊. 1971. 7 pp.20.

金日成의 이러한 경력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른바 「레닌」帽을 제대로 써볼겨를 조차 없이 戰鬪帽만 써왔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北韓이 선전삼아 「金日成의 抗日斗争」을 그려낸 画面에 의하면 그는 「레닌」帽을 쓰고 作戰指揮를 해온 것처럼 꾸며져 있다. 이것은 바로 中共의 毛沢東의 「長征」의 画面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南北赤十字會談의 平壤측 諮問委員으로서 서울에 온 尹基福이 「레닌」帽을 쓰고있었다는 사실은 金日成의 過去와 더불어 살펴볼 만하다.

그들은 1945년 8월의 解放後 北韓의 市民들에 접근하려고, 北韓의 市民들에게 일종의 「思想家」的인 抗日鬪争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이른바 「레닌」帽을 쓰고 활보해 왔다. 그것은 물론 「레닌」이나 毛沢東의 系統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服裝으로서 스스로의 經歷을 偽裝해보려는 일들은 분명히 말해서 自己顯示慾에 지나지 않다.

北韓記者들중에도 이른바 「레닌」帽을 들쓰고 있는 자가 있었지만 이것은 北韓支配層의 自己顯示的 剷一性에 추종하려는 경향에 지나지 않다.

「宗派分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어도 黨을 疑心하고 黨에 속을 주지 않습니다. 柳丑運같은 사람은 왜 自己를 相을 시켰는가 하는 것까지 疑心했습니다……우리가 좀 노여워하는가. 黨에서 會議가 緊張한가. 自己問題는 어떻게 取扱되는가. 옆에서 무슨 바

스락 소리만 나도 自己問題가 아닌가해서 눈이 둥글해집니다」⁴⁾

이말은 金日成이 1958년 3월 6일 「朝鮮勞動黨」제 1차 代表者會議에서 발표한 結論의 한구절이다.

「레닌」帽을 들쓰는 비롯도 바로 이처럼 스스로를 假裝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獨裁요 獨善的인 體制의 獨走때문일 것이다.

허술한 服裝으로 스스로의 「본마음」에 완충지대를 두고 머리는 예전의 것과 다를바 없는 「레닌」帽을 들씀으로써 이른바 「일꾼」인양 꾸미는 風潮는 北韓이 이미 (유엔)總회에 초대되던 날부터 와해의 길을 줄달음치게 됐다.

獨逸의 精神分析學者「프로름」은 말한다. 「사람들은 「바벨」의 탑처럼 「심불」을 만들려고 숙덕공론을 일삼는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심불」이 權力을 行使하자 이번에는 自由가 없다고 「바벨」의 탑을 무너뜨릴려고 든다」

北韓의 市民들이 端正했던 服裝의 傳統이 몸에 배인 市民들이 옷에 대한 不滿을 멀지않아 폭발시키고야말 것이다. 우리측으로서는 「T셔츠」와 運動帽子和 같은 平和롭고 陽性的이고 活動的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편이 利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Ⅳ. 飲食과 生活環境의 比較

毛沢東은 말했다.

註 4) 金日成選集 (第 5卷 pp. 385)

『敵과 鬪爭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한가지 概念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戰略上으로는 온갖 敵을 蔑視해야만 되며 戰術上으로는 온갖 敵을 重視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全体로서는 그것을 蔑視해야만 되고 個個의 具體的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重視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만일 全体라는 面에서 敵을 蔑視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치主義의 과오를 범하게 마련이다……그러나 具體的인 問題, 個個의 敵을 두고 볼때 만일 우리가 그것을 重視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冒險主義의 과오를 범하게 마련이다. 戰爭은 한바탕 한바탕씩 싸워갈 수 밖에 없으며 敵은 한구석 한구석씩 消滅해갈 수 밖에 없다. ……』

戰略上으로는 밥을 먹는 일을 蔑視한다. 그러나 具體的으로 먹기 시작하자면 역시 한입 한입씩 먹어야 되며 아무도 宴會의 料理를 한입에 삼킬수는 없다. 이것을 가라사대 個個로 解決한다고 하며 軍事書籍上으로는 各個突破라고 한다. 5)

눈치主義와 冒險主義에 관한 毛沢東의 理論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性向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筆者가 역시 板門店에서 北韓記者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

『당신네들은 술을 어떻게 마시오.』

『술이요? 저녁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사발 들 어키ديو.』

註5) NYT子紙(1961.6.10字)

『안주는 무엇을 먹고?』

『빈자떡이 있지 않습니까? 커다랗ديو. 그놈을 한장 먹고 갑니다.』

『술의 양은 어느정 됩니까?』

『여보세요. 저기 있는 南韓記者同志처럼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마시다간 自己批判을 당합니다. 그저 얼큰해지기전에 자리를 뜨는 거지요.』

이러한 對話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事實인즉 北韓의 知性人들은 술을 한사발씩 들이키는 반면에 南韓의 知性人들은 술을 한잔씩 마시는 習慣의 差異를 엿볼 수 있다.

南北赤十字會談本會議가 처음으로 板門店에서 열렸을 적에 南韓측에서 배운 「파티」席上에서 北韓記者들이 生鮮類보다는 돼지고기를 삼시간에 치운 일도 注視할 만하다. 生鮮의 多樣성과 肉類의 劃一性은 南北韓의 氣象學的, 海洋的 差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北韓의 경우 한사발씩 들이키고 肉類를 한점씩 집어먹는 氣像은 大陸에 보다 가까운 面을 참고할 때 冒險主義에 빠지기 쉬운 性向을 潛在的으로 지니고 있다.

南韓의 記者들이 처음으로 平壤을 방문했을 때의 話題는 역시 大同江의 농어 회에 집중되었었다. 南韓의 性向이 대개 生鮮으로 상징되고 北韓의 그것이 肉類로 상징된다면 (물론 이것은 東海岸과 西海岸의 差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食性을 통해서 볼수 있는 格差가 北韓에서는 劃一主義→獨裁主義社會를 빚어내기

쉬운 風土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水産學界의 權威인 鄭文基博士는 말하고 있다.

『흔히들 以北사람들은 生鮮에서 고향맛이 안난다지만 어디 南韓에 産卵하기 한달전의 생선이 물려옴니까. 北韓의 東海岸에서는 産卵期의 생선이 물려오니까 맛이 있게 마련입니다. 6)』

가닭에 南北對話에 있어서 飲食이나 食性을 가지고 따지는 일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기 쉬겠다.

V. 標語의 交還

群衆의 정신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진다. 즉 繪畫 말 演說의 妙技 - 標語 등은 그들의 想像力에 이상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妙味를 잘 파악하고 있는 者가 群衆의 空想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험적인 事實이다.

『西洋의 경우, 「로마」帝國의 「쓰기 지디스」는 「義戰」이라는 말을 창조해냈다. 「로마」帝國主義는 「自由」 「人間性」 「正義」의 旗識 아래 西方世界를 정복했었다.

永遠한 로마」(無敵의 로마)가 선전되고 權力을 유지하기 위해서 「寬大」와 「平和」의 概念이 「로마」帝國主義와 결합되었다.

註 6) 週刊한국 (1972. 10. 8)

그후 「프랑스」革命時代に 「라파에트」는 「人權」이라는 말을 창조했고 「自由」 「平等」이라는 말도 처음으로 위대한 뜻을 지니게 됐다. 이러한 말대신에 「나폴레옹」은 「榮光」(la gloire)과 「大國民」(la grande nation)이라는 「슬로건」을 안겨주었다.

「나폴레옹」은 「榮光」이라는 旗幟아래 「프랑스」人들을 자기주변에 모아놓고 將兵들을 獨逸로 進軍시켰는데 獨逸에서 승리하자마자 「平靜은 市民의 第一義務」라고 勸말을 써붙였다.

「民族性」이라는 말은 普仏戰爭이 한창이었던 1810년 獨逸의 「루드비히·안」이 창조해냈다.

1815년에서 1825년에 이르는 동안 「身分精神」(이것은 「디루케」가 쓴 "프러셔貴族에 관한 一家言" 속에 적혀있었다)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分守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라겠다.

「貴族性」이라는 概念은 당시 일정한 貴族層의 행동에 대한 非難의 말로 쓰여졌고 1840년후부터는 「엘베」江의 東쪽에 도사리고 있던 「프러셔」地主들에 대한 政治的 非難語로 바뀌었는데 「비스막크」는 어엿이 이 名稱을 승인하고 말았다.

「自由黨」이라는 말은 「스페인」에서 생겨 처음에는 非政治的으로 쓰였는데 나중에 政治的인 뜻을 띠게 됐다. 1830년 이후 「進歩」라는 정치적강령어가 등장하여 1840년부터 高處의 衝격력

을 지니게 됐다.

「帝國主義」라는 말은 「이탈라」가 「브렌넬」 國境에 대한 要求를 내걸고 兩「나폴레옹」을 攻讎하기 위해서 창조해낸 것이다. 그후 이말이 유행함에 따라 「諸民族의 解放」 「少數民族의 保護」라는 標語가 파생됐다.

「유럽의 勢力均衡」 「손을 데라!」 「유럽協商」 「陽地를 다오」 「門戶開放政策」 「프리헨드政策」 「生活圖」 등등의 標語가 産業革命 후의 세력조정의 版圖속에서 생겨났었다.」⁷⁾

이처럼 標語는 특정한 直言的方法으로 내세우는 主張인데 이러한 主張은 証拠나 證明으로부터 될수 있는대로 自由로와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証拠不充分的 이러한 標語의 主張이 똑같은 表現으로 한 없이 되풀이 될 적에 이른바 精神的 潮流가 형성되고 뒤이어 강력한 傳達作用으로 心理的感染이 생기고 또한 사람들에게 깃들어있는 模倣충동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心理的感染과 徒党意識을 강조하기 위해서 北韓에서 唯一 思想을 선전하고 있는데 南韓에 대한 갖가지 辱說의 標語를 그 語源을 밝혀서 反駁해봄직도 하다.

註7) 世界政治宣伝史 (A. 슈텔민거著, 高沖陽造訳, 岡倉書房
1943. pp. 199.

「간디」는 手紡車 (가쓰달)로 全印度統一의 상징으로 삼았었다. 韓半島의 경우도 全韓的인 郷土性에 어울지는 새象徴으로 내세워봄이 어떠할까.

北韓의 金日成一黨은 확실히 「民族의 共同遺産을 侵食 또는 寄食」하고 있다. 그러한 個人崇拜體制를 무너뜨리기 위한 標語專門家의 育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理念은 宣傳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決코 훌륭하지 않는 것이며 또 宣傳은 값어치 없는 理念에 永統的으로 效果를 빛내줄 정도로 決코 훌륭하지 않는 법이다.』

第 4 章 对北心理戰의 媒体와 通路의 再整備強化方案

I. 心理戰의 主要媒体

心理戰에는 「퍼스널·미디어」의 利用을 결코 等閑視할 수 없지만 그 効用性에 비추어 「메스·미디어」의 利用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메스·미디어」로는 新聞, 雜誌, 書籍, 「팜프렛」 傳單 便紙 등 印刷媒体와 「라디오」, 「레코드」, 「카세트」, 擴声器 등 聽覺媒体, 映画, 写真 등 視覺媒体, 그리고 TV·VTR 등 視聽覺媒体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各種媒体들은 제마다 다른 特性和 制約을 지니고 있어 그 効用度는 첫째로 그 通路상에 障礙要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둘째로는 心理戰目標對象의 諸般環境条件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媒体의 効用性을 따지려면 먼저 心理戰의 對象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心理戰의 對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心理戰을 展開하는 側의 自国領土內에 居住하는 사람들을 對象으로 하는 对內的인 것과, 둘째로는 心理戰의 直接目標地인 敵性國家의 構成員들을 對象으로 하는 对敵的인 것과 셋째로는 心理戰의 間接對象인 才三國에 居住하는 自国僑胞와 그 나라 國民 및 寄留外國人을 對象으로 하는 对外的인 것으로 区分할 수 있다.

만약 心理戰의 「컴유니케이션」對象이 对內的인 境遇에는 앞서

列挙한 모든 「미디어」가 有効하게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対象이 对敵的인 경우, 그 敵性國家가 言語體系를 달리한다면 印刷「미디어」와 聽覺「미디어」의 利用度는 激減될 것이고 映像「미디어」와 視聽覺「미디어」도 그 効果가 半減될 것이다. 만약 그 敵性國家가 同一한 言語體系를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相互間의 交流가 極端的인 統制下에 있다면 印刷「미디어」와 映像「미디어」는 거의 無力化할 것이며 電波를 利用해서 傳達될 수 있는 聽覺「미디어」와 視聽覺「미디어」는 相當한 技術的인 制約이 따르기는하나 어느 정도 有効하게 利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인 対象이 对外的인 경우 TV나 擴声器等 傳達距離間에 制限이 있는 「미디어」를 除外한 余他的 「미디어」는 言語上의 障畧만 克服한다면 모두 效果있게 使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本章의 課題가 对北心理戰의 媒体에 局限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앞서 列挙한 세가지 対象중 두번째 对敵的인 경우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对北心理戰의 경우 理論上으로는 그 客体와의 地理的인접성과 言語體系의 同質性이라는 利点이 있기 때문에 前述한 모든 「미디어」가 利用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南·北間의 交流가 極도로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大部分의 「미디어」가 充分한 效果를 發揮할 수 없다는 점을 注目해야 된다. 설사 어떤 「미디어」가 어떤 경우에 약간의 效果를 나타낼 수 있다하더라도 거

기에 「인풋」(人力)하는 努力(費用)에 비해 거기에서 發生하는 「아웃풋」(出力) 즉 效果가 微微한 경우라면 우리는 「코스트·이펙트」(cost-effect) 原則에 따라 그의 有用性은 無視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新聞, 雜誌, 書籍, 「팜프렛」便紙등의 印刷 「미디어」는 通路上의 障害 때문에 對北心理戰에서의 主要 「미디어」로서의 機能을 期待할 수가 없다. 다만 伝單은 接境地帶에서의 空中 및 地上 撒布 또는 季節風을 利用한 氣球을 통한 撒布로 그 效果를 전혀 無視할 수는 없으나 그 制限性과 不確實性이라는 弱點 때문에 主要 媒体로 登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印刷媒体가 才三國을 통한 郵便物形式으로 또는 會談場所에서의 直接手交로 送達될 수 있을 것이 想定되기는하나 이것 역시 北韓當局의 嚴格한 檢閲網을 過해서 實效를 거두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통로상의 障害要因 때문에 對北心理戰의 媒体로서의 實用性이 없다는 점에서 映畵나 寫眞등의 視覺媒体나 「레코드」, 「카세트」 등의 聽覺媒体 그리고 VTR 같은 視聽覺媒体도 매일반이다.

이렇게 보면 통로상에 比較的 制約을 덜받는 媒体인 「라디오」 擴声器, 그리고 TV 등 電波 「미디어」만 남는다. 물론 擴声器는 伝單처럼 送達範圍의 制限性을 지니고 있으나 伝單의 또 하나의 脆弱點인 不確實性은 없기 때문에 꽤 效果的인 媒体로 利用될 수가 있다. 그리고 TV도 現在의 技術的인 條件下에서는 制限性을 띄고 있는으나 高出力の 中繼所設置 또는 將次的 技術的革新을 기다

린다면 現在の 「라디오」와 比肩할만한 主要 媒体로써 利用度가 높아지리라고 展望된다.

그리고 또한 實用性이 없다고 烙印된 余他の 媒体들도 어떤 秘密通路가 開設된 경우에는 相當한 利用價值를 回復할 수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秘密「채널」이란 으레 狹小한 것이므로 無限定한 投入이 不可能할 것이니 그 「미디어」에 담은 「메시지」(內容)은 心理戰의 目的에 寄與할 수 있도록 特別히 製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純粹한 商業主義의 目的으로 製作된 韓國의 통상적인 「메스·미디어」內容은 心理戰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逆利用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南北韓間에 가로놓여있는 現實條件에 變動이 없는限 對北心理戰에 百効하게 利用될 수 없는 主要媒体로는 「라디오」, TV, 擴声器, 伝單등이라고 할 수 있다.

II. 心理放送施設의 問題點과 補強策

現在 南韓에는 國營放送으로 3個의 中央局과 19個의 地方局이 있고 그밖에 民營放送이 15個 軍放送이 4個, 中繼所 16個 都合 54個의 放送局이 있다. 이 중 對北心理戰 專用으로 中央才?放送이 있었는데 이는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決議에달라 1972年 11月 10日 付로 機能이 停止되고 있다. 이밖에 文化, 東亞, 東洋, 基督教, 極東 등의 放送局이 「프로」의 一部를 對北放送을 위해 提供해 왔다. 그리고 全的으로 對外放送을 專担하는 國際放送局이 있다.

한편 北韓은 모두 公營放送局으로써 平壤에 3個, 各道放送局 15個가 있으며이밖에 市·郡에 有線放送局 1百69個가 있다. 이 중 對南放送用으로는 朝鮮才2放送, 海州, 開城, 양덕放送局이 있고 對外放送用으로 國際放送局(平壤)이 있다. 그리고 黑色放送用으로 「統一革命黨의 목소리」放送局이 있다.

이처럼 放送局의 數로 보아서는 南韓이 北韓에 비해 3.6倍의 優勢를 보여 斷然 有利한 地歩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 出力에 있어서는 北韓쪽이 더 強勢를 보이고 있어 放送의 效果的인 活用面에서는 오히려 北韓이 더 有利한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心理戰專用放送局의 出力을 보면 南韓의 對北放送의 出力은 1百Km 1개소, 50 KW 5個所인데 비해 北韓의 對南放送의 경우는 3百KW 1個所, 1百KW 3個所 50KW, 1個所로 總出力으로 따지면 南韓의 近 2倍에 達하는 圧倒的인 優位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北韓은 처음부터 對南心理戰을 展開하려는 意圖下에 地域別로 放送局의 位置를 適切히 選定한 데다가 強力한 電波로 送信하기 때문에 南韓全域의 對象을 「카버」할 수 있는데 비해 南韓은 小規模의 低出力放送이 大部分인데다가 그들이 서울一円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電波의 重複現象과 可聽距離의 制限으로 北韓全域에 대한 有効適切한 效果를 期待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한편 TV放送局의 施設을 보면 南韓에는 國營TV 1個所와 그 中繼局 11個所, 民營 2個所, 民營(AFKN) 1個所 其他 地方TV

5個所 등 都舍 20個所가 있는데 비해 北韓에는 平壤TV, 開城TV
통털어 2個所가 있을뿐이다.

1百55「마일」의 休戰線에 沿하여 設置되었던 南·北兩側의 擴
声器放送施設은 南北調節等의 決議에 따라 72年11月10日부터 機
能을 停止하고 現在 沈黙을 지키고 있다. 參考삼아 그 施設을
比較해보면 南韓은 80個地點에 3百50W~2千4百W出力의 作戰
用「앰프」61台 妨害用 26台 都舍 87台를 設置하고 있으며
北韓은 作戰用 56台 妨害用 55台 도합 1百11台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性能面에서 비교해보면 南韓은 可聽距離 10 Km 이상
34台 556 Km 53台를 保有하고 있고 北韓은 10 Km 이상 38
台, 5~6 Km 73台를 設置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南韓은 北韓의 비해서 「라디오」, TV
擴声器 등의 放送「미디어」의 數에 있어서 모두 優勢한 立場에
있으면서도 그 出力의 낮음과 그 位置의 重複으로 效果面에서 그
優位性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出力의 增強이 要請되며 특히 心理戰의 中樞적인 「미디
어」인 「라디오」放送局의 出力強化는 時急한 問題라고 하겠다.
적어도 心理戰担用의 KBS才2放送의 出力은 現在의 1百KW에서
最少限 그 「카운터파트」인 北韓의 朝鮮才2放送局의 出力 3百KW
와 對抗할 수 있을 정도로 增強시켜야 할 것이고 이밖에도 休戰
線에 가까운 位置에 있는 地方放送局 예컨대 江陵 春川放送局들의
出力을 적어도 1百KW 정도까지 補強하는 것도 생각해볼적하다.

그리고 西部地方의 對北可聽地域의 拡張을 위해서는 群山에 있는 西海放送局의 施設強化와 경우에 따라서는 汶山에 새로운 高出力の 中繼所設置도 考慮할만하다.

TV放送局의 경우에 있어서는 南韓쪽이 圧倒적으로 優勢하나 現在의 南韓 各 TV局의 施設能力으로는 극히 制限된 一部地域을 除하고는 저의 心理戰利用이 不可能한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休戰線近方에 中繼所設置를 통해서 어느정도 可視地域의 擴大를 期待할수는 있으나 現在 北韓의 TV「셋트」保有數로 보아 그 實効面에서 時期尚早의 느낌이 있다. 北韓은 1968年度에 TV放送을 開始하여 1970年度에 TV「셋트」普及實績이 겨우 2萬7千臺에 불과했으니 현재의 保有臺數는 10萬臺内外程度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되면 可視地域을 상당히 擴大시킨다 하더라도 그안에 들어가는 TV「셋트」數는 微微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對北TV 中繼用施設擴張을 위한 大大的인 投資는 效果果實이 너무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側의 開城TV放送局의 開設은 多분히 對南心理戰에 의 TV利用을 目的한것을 勘案한다면 우리도 이에 對抗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 電子工學의 飛躍的인 發展「웬포」를 불매 技術革新을 통해 北韓全境이 可視地域化할 날도 멀지않았다고 믿어지는 만큼 心理戰에서 가장 寒用的「미디어」인 TV의 利用方途의 準備와 開發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休戰線兩側에 設置된 擴声器施設은 合意에 따라 沈黙을 지키

고 있으나 언제 使用이 再開될는지 모르는 狀態에 있다. 「엠프」의 數量面에서는 南韓側이 약간 上廻하고 있으나 妨害用「엠프」가 北韓側에 많기 때문에 突効的인 側面에서는 北韓이 有利한 立場에 있다. 또한 北韓은 「엠프」에 動力線을 利用하고 있는데 반해 南韓은 自家發電機를 利用하고 있어 運營上 많은 難點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對策 또한 必要하리라고 본다.

Ⅲ. 心理放送內容의 問題點과 補強策

心理戰의 目的을 達成하는에는 「미디어」의 性能과 施設도 重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重要한것이 그 「메세지」의 內容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內容의 放送이 어떠한 對象에게 얼마만큼 오랜 時間에 걸쳐서 傳達되느냐가 考慮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南韓의 KBS才2放送과 北韓의 朝鮮계2放送의 「프로」數는 38個 北韓은 22개로 되어 있다. 우선 이 數値로 만보더라도 南韓은 內容의 多樣性を 北韓은 內容의 集約性を 보다더 追求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 內訳을 보면 南韓은 朗誦이 13 「프로그램」을 단연 많고 「構成」이 7, 「對談」이 6, 「DJ」가 4, 「講談」 「드라마」가 各 3, 「公開發送」, 「中繼」가 各 1개씩으로 되어 있다. 北韓도 「朗誦」이 12 「프로」로 단연 先頭를 달리고 다음으로 「講談」, 「對談」, 「構成」, 「드라마」가 각각 2개 그리고 「公開發送」, 「D.J」가 各 1개씩이다. 「프로」 構成形態로 보아 「講談」과 「朗誦」을 硬派라고 한다면 「對談」

「構成」 「드라마」 「公開放送」 「DJ」는 硬派라고 할 수 있다. 南韓의 強派 「프로」가 全體의 42%를 차지한 것에 비해 北韓의 「프로」는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의 放送內容이 敎條的인 宣傳에 置重하는데 대해 南韓의 그것은 娛樂的인 要素가 보다더 加味된 說得的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心理戰의 窮極的인 目的이 受容者의 意識構造와 態도의 變容에 있는 이상 聽取慾의 鼓吹와 持續은 絶對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비추어 南韓의 「프로」形態가 北韓의 것에 비해 賢明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聽取慾의 鼓吹와 持續은 「프로」形態뿐만 아니라 「프로」內容 自体의 「테마」나 「프레젠테이션」의 順序, 合理性, 信憑性 기타의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影響을 받는 것이니 앞으로는 보다 「說得的 論理」에 會談된 「메시지」製作에 創意를 發揮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內容이 얼마동안 放送되느냐도 比較해볼 價值가 있다.

南韓의 對北戰略放送은 KBS 才2 放送이 제대로 機能을 發揮하던 때를 基準으로하면 1日 平均 36時間을 送出하고 있는데 그를 國營放送(才2 放送과 國營放送局)出力 1百KW로 33時間 民營放送 出力 50 KW로 3時間으로 되어 있다.

北韓의 對南戰略放送의 1日 平均時間數는 30時間으로서 南韓의 時間數보다 약간 적다. 그중 심리전을 전담하고 있는 北韓才2 放送局은 出力 3百KW로 18時間 남어지 12時間은 出力 1百KW의

北韓海外放送局, 開城, 海州, 陽德등의 放送局이 맡고 있다.

이처럼 南北韓兩側의 戰略放送의 時間配定은 엇비슷한 實情이다. 그 「메시지」內容이 전적으로 心理戰用으로 製作되었느냐 與否는 勘索할 必要가 있다. 즉 그 放送內容이 心理戰전담放送局 自体에 의해서 特別한 目的으로 製作된것과 对内一般用放送을 그저 中繼해 주는것과는 만약 聽取時間이 同一하다고 前提한다면 그 効果의 濃度에 差가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南韓의 戰略放送이 送出하는 33時間의 對北放送內容을 보면 自体放送이 22%, 再生 및 中繼放送이 78%인데 비해 北韓은 自体製作放送이 53% 再生放送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南韓은 北韓보다 自局製作放送이 짧고 대신 再生 및 中繼放送時間이 길다는 結果가 나온다. 放送의 效果란 放送時間의 長短에 의해서만 決定되는것은 아니지만 放送의 內容과 聽取時間이 一定할 경우에는 放送時間의 長短이 하나의 重要한 測定基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再生放送보다는 「오리지널」한 內容을 더 많이 送出하는 便이 效果가 있을 것이고 中繼放送보다는 製作放送의 時間이 더 많은 便이 效果가 있으리라는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우리가 北韓보다도 더 長時間의 放送을 送出하면서도 그 效果에서는 더 뒤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原因을 따져본다면 첫째, 우리의 心理戰에 臨하는 姿勢가 安逸하며 熱意가 不足한데 있고 둘째로 心理戰「메시지」製作에 필요한 專門

家나 製作「스타프」가 모자란다는것을 뜻하며 셋째로는 이 方面을 뒷받침해주는 予算이 弱하다는데 있는것 같다. 이를 補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心理戰의 重要性에 대한 當局의 투철한 認識이 先行해야할 것이다.

IV. 對北心理戰 通路의 現況과 補強策

현재 南·北韓이 心理戰에 利用하는 通路는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利用하기 쉽고 또 広範圍하고 効果的인 通路는 電波「미디어」이다. 心理戰에 있어서의 中樞의 通路인 電波施設 즉 「라디오」放送·텔레비放送, 擴声器 등의 利用에 대해서는 前項에서 詳述했음으로 重言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重要視되는 通路는 活字「미디어」를 利用하는 通路 즉 傳單이나 不穩文書등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은 季節風을 利用하여 氣球을 띄워 南韓에 不穩傳單을 散布하는 한편 日本, 香港, 프랑스 其他 才三國을 통하여 南韓에 居住하는 著名人士 또는 學生 및 社會團體를 對象으로 不穩文書(便紙, 팜프렛, 書籍)를 郵送하고 있다. 不穩文書의 投入量은 南韓情勢의 起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그 數量이 增加되는 傾向이 있다. 郵便을 통한 文書의 傳達는 原始的인 方法이라할 수 있으나 이것이 通路上的의 關門을 무단히 통과하여 個人에게 傳達되는 경우 受信人에게 미치는 心理的衝擊이나 効果는 큰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兩便이 이 通路에 대한 「체크」(檢閱)을 소홀히 하지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通信의 自由가 憲法上의 基本權으로 保障하고 있는 南韓에서는 徹底를 期하지 못하는 反而 個人의 自由를 認定하지 않는 北韓에서는 關門上의 檢閱이 徹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로를 利用하는 경우 相對的인 意味에서 北韓보다도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北韓의 「체크」가 徹底하다 하더라도 萬全을 期할수는 없는 것이니 이 통로를 전혀 無視할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事情을 勘察하여 北韓에서 合法的으로 通用되는 刊行物로 偽裝한다든지 朝總聯의 名義利用, 送北在日僑胞親戚의 이름 借用等 方法은 있을 것이다. 이와 同時에 北韓의 對南 郵送「루트」의 封鎖를 위해서 보다 科學的方法을 통해 郵便物檢閱의 強化를 期해야 될 것이다.

세째로 板門店, 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等 會談場所를 利用하는 通路가 있다.

특히 板門店은 休戰後 오늘날까지 北韓이 하나의 宣傳場所로 利用해왔다. 北韓은 休戰線一帶에서 故意로 事件을 이르게놓고 이를 마치 「유엔」側에서 挑發한것처럼 捏造, 歪曲, 誇張함으로써 「유엔」軍을 侵略者로 印象지우려고 애써왔다. 또한 訓練받은 煽動員들을 記者로 假裝하여 北韓의 新聞, 畫報, 物品등을 「유엔」側 記者와 訪問客들에게 傳達하면서 자기네를 誇張宣傳하고 反美思想을 鼓吹하는 한편 對韓國政府 非難을 퍼부어왔다. 물론 南韓側에서도 이에 대한 對抗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는것은 아니나 그러한 役割을 遂行하기를 期待되는 記者들만 하더라도 원래 「리베랄」한 氣質에

다가 그 方面의 專問的인 訓練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效果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우기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가 벌리면서부터는 會議場所가 바로 南北兩側의 心臟部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會議場所를 利用하는 心理戰의 效果는 더욱 커지고 따라서 이 통로의 重要性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따라서 從來 소홀히해온 이 통로에 대한 再認識的인 事前對策이 要請된다. 會議代表는 물론 그 隨行員들과 隨行記者들에 대한 事前 知識情報의 충분한 提供과 「세미나」를 통한 對策의 共同研究같은 것이 必要할 것이다.

네번째로 諜報員 및 被拉者를 利用하는 通路가 있다. 諜報員들은 地下組織, 諜報活動以外에도 武力에 의한 破壞, 殺傷, 拉致 등으로 相對方의 治安을 攪亂시키고 不穩文書散布 流言蜚語의 流布등을 통해 民心을 動搖시킨다. 또한 海上에서 漂流中인 船舶이나 漁撈中인 漁夫를 拉致하여 자기네의 發展相을 視察케하고 思想的인 洗腦를 加한後에 歸還시켜 자기측의 優位性을 讚揚宣傳케 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는 歸還後의 活動이 當局의 「체크」를 받기 때문에 별로 效果的인 方法이라고는 볼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재 南·北韓이 利用하고 있는 心理戰의 主要路를 밝혀 보았다. 이러한 모든 通路를 利用하는데 있어서 南北兩側은 모두 비슷한 「미디어」와 비슷한 方法을 使用 相互對抗하고 있으나 心理戰에 對備하는 우리쪽의 制度上의 脆弱性때문에 北韓이 더 實効를 건우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相對方의 心理

戰攻勢를 막는 데는 全体主義的인 統制社會가 보다 適當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지난해 10월 維新 이후 法體系의
再整備와 精神姿勢의 再定立으로 心理戰對備에는 다소 더 效果的인
裝置를 갖추게 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自由民主主義
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限 南韓社會는 外部로부터의 心理戰侵潤을 封
鎖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虛點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心理戰을 유해 自由民主主義 自体를 犧牲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디어」나 路의 再整備 強化를 통해 우리의 「헨디캡」을 「카
버」하는 努力만을 아끼지 안해야 할 것이다.

心理戰遂行에 있어 北韓의 執行機構는 共産黨을 中心으로 中央集
權의으로 體系化되어 있어 政策의 執行이 能率的이며 迅速한데 비
해 南韓의 機構는 多元的이어서 相互間의 橫的連絡이 弱하다. 따
라서 目標의 設定에 重複, 相衝이 있을뿐 아니라 執行에 있어서도
混線과 緩慢을 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흔히 지적되어
왔다.

心理戰의 主要媒体인 「메스·미디어」가 南韓의 경우는 國營뿐만
아니라 民營業체가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民營「
미디어」는 公共의 目的에 奉仕할 義務가 있는 한편 自体存立의
基盤이 되는 商業的인 利潤을 追求할 權利를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現制度下에서는 執行機構의 一元化란 期待할 수 없고 또
반듯이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우리가 扱
할 수 있는 길은 心理의 「마스터·프렌」 즉 戰略的인 것은 統

一된 國家機構에서 樹立하고 그것의 執行 즉 戰術的인 것은 各 媒體의 特殊性에 따라 採択케 하는 方法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對北用뿐만 아니라 對內 對外用의 心理戰全般의 戰略樹立을 擔當하는 國家的機構의 創設이 필요하다. 이 機構는 國家의 基本政策에 쫓아 長期目標를 세우고 國內 外時勢의 變化 또는 北韓의 心理戰內容分析을 土台로 해서 當面目標를 세워 이를 다시 對北 對內 對外用으로 細分하여 各各 該當 執行期間에 그 指針을 提示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一元化된 戰略機構와 一線執行機構의 中間에 媒體別 戰術機構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직하다. 예컨대 電波媒體研究所, 新聞, 雜誌媒體研究所 文藝媒體研究所 따위다. 이러한 戰術機構는 前記 戰略機構가 提示한 當面目標를 實現하는데 있어 各 該當媒體가 그 技術的特性에 맞추어 받아들일 수 있는 具體的方法을 研究開發해서 이를 各執行機構에 例示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戰術機構의 例示는 國營執行機關에 대해서는 몰라도 民營機關에 대해서는 無修正採択을 強要해서는 안될 것이다. 內容의 統一化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效果에 逆作用하는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民營機關에서는 그 例示를 參考로 삼고, 거기에서 獨自의인 特殊性을 加味하면 「바라이어티」가 있어 좋을 것이다.

세째로 心理戰要員의 底辺擴大와 訓練強化가 時急하다. 北韓에서는 宣傳 「매스 미디어」의 專門的研究를 兼한 「밖스·레닌」主義

放送大學을 設置하여 心理戰放送要員들을 養成하고 있다. 우리도 各大學에 있는 新聞放送學科나 社會學 및 心理學科의 「카리큘럼」에 心理戰研究科目을 補強하는 한편 國立大學에 心理戰研究所등을 두어 그 反面의 專門家養成에 寄與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間의 會談機會가 많아지고 接觸交流가 活潑해지는 趨勢에 있는만큼 專門家의 養成뿐 아니라 國民全員의 精神 및 理論武裝이 時急을 要한다고 할 것이다.

第 5 章 南北韓心理戰応酬

의 過去와 現在

I. 北韓의 對南 對內心理戰

모든 共產主義國家가 그러하듯이 心理戰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 具體的인 活動方案을 마련함에 있어 北韓은 언제나 積極的이었고 能動的이었다. 그들이 展開하는 心理戰의 궁극目標은 두말할 것도 없이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이며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그들은 心理戰의 主武器인 宣傳과 煽動, 謀略 등의 方法을 교묘히 구사해왔고 또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體制下에서 宣傳과 煽動이 담당하고 있는 役割이 지대하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共產主義의 本質부터가 階級鬭爭을 통한 資本主義의 打倒를 目的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革命的인 生理를 타당화시키고 理論化시키기 위해서는 内外를 向한 끊임없는 政治的宣傳과 煽動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求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더욱이 第 2 次世界大戰 이후 「힘의 均衡」을 바탕으로한 東西間의 對決이 軍事的인 것에서 政治的인 것으로 樣相을 달리하자, 自由陣營에 대한 共產圈의 心理戰活動은 점점 擴大強化될 수밖에 없었으며 集中的인 「宣傳과 煽動」의 攻勢로써 自由陣營을 弱화시켜 보려는 作戰이 바로 그들의 對西方戰略의 基本路線처럼 부각되었던 것이다. 北韓도 이에 例外일 수는 없었다. 비록 6·25 事變이라는 軍事的冒險을 試圖해보기는 했으나 일단 그것

이 失敗로 돌아가자 北韓은 다시 共產化統一의 戰法을 直接에서 間接으로 武力戰에서 政治戰¹⁾으로 轉換하였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의 궁극적인 目標은 共產化統一에 있다. 다시말해서 그들의 心理戰活動은 南韓內에 共產化統一을 可能케할 最善의 분위기를 造成해놓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최선의 분위기」란 大體로 세가지條件이 갖추어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이 共產化統一企圖를 實踐으로 옮길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妨害하고 나설 「外勢」가 南韓內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卽 어떠한 形態에 의해서도 南韓이 外勢의 도움을 받거나 그 힘을 利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北韓에 의한 美軍全面撤収要求 韓美・韓日 離間策 反美, 反日宣傳과 煽動이 모두 이러한 條件을 達成하기 위한 것들이며 한국의 越南派兵을 非難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立場을 弱化시켜보려는 試圖도 역시 이에 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南韓內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革命에 必要한 條件」이 具備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革命에 필요한 條件이란 다름아닌 混亂의 造成을 뜻한다. 社會全般에 걸친 秩序의

註 1) 여기에서 말하는 政治戰은 心理戰의 또하나 다른 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흔히 心理戰은 뚜렷한 概念의 統一없이 경우에 따라 神經戰, 思想戰, 間接侵略戰, 宣傳戰, 政治戰 등으로 區別해서 使用되고 있다. 廣義에서 心理學을 包含하는 것이다.

混亂 政局의 混迷 經濟的인 不安과 이로말미암은 南韓民衆들의 意
慾喪失등이 모두 「革命에 필요한 條件」의 造成일 수 있겠다.
따라서 北韓이 벌리는 南韓政府의 施策非難 經濟計劃의 破綻強調,
官民離間策등이 모두 이 테두리속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는 南韓內에 그들의 共產化統一을 돕고 同調 呼應해올 勢力
이 確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必要로하는 이러한
同調 呼應勢力的 南韓內 부식은 北에서 直接 南派된 勢力이 아닐
경우 두가지 경로를 통해서 可能하게 된다. 하나는 南韓政府에
대한 不平과 不滿이 極度에 달해서 明確한 根拠도 없이 北韓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져보는 類型을 포섭하는 것이고 다른하나
는 意識的으로 또는 理論的으로 北의 體制가 南의 體制보다 우월
하다고 생각하는 分子와 接觸을 하는 것이다. 前者는 反挽에서
시작했고 後者는 思想性向의 左傾化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지
만 兩者가 다같이 北韓의 끈덕진 工作없이 는 그들에의 同調 呼應
勢力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北韓이 自体發展相을 誇
張宣傳하는 것이나, 平和統一攻勢를 앞장세워 美化된 自画像을 그
려보이는 것이나, 南韓青年들에게 徵集反對를 南韓勤勞者들에게 怠業
과 罷業을 南韓知識人들에게 生活條件의 改善要求등을 呼訴하고 증
용하는 것도 모두 이 세계변條件을 造成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以上은 共產化統一이라는 最終目標를 가진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
이 단계적으로 노리는 効果와 方法을 略述한 것이어니와 그 活動

내용의 多樣성과 치밀성은 그들이 가진 共產化統一에의 執念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北韓의 對南心理戰이 組織的이며 多様な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對內宣傳 역시 치밀하고 徹底하다. 共產主義가 大衆의 非組織的이며 뒤떨어져 있음을 크게 強調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레닌」이 規定한 大衆의 概念을 보더라도 「大衆이란... 가장 組織되어 있지않고 啓蒙되어 있지않고 가장 抑壓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組織에 가까워지기 어려운 分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3)

即 大衆은 언제나 黨의 啓蒙과 指導를 받아야만하는 存在이며 따라서 強制手法에 의한 大衆說得의 不可避하다는 것을 共產主義體制는 못박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大衆觀은 共產主義社會에서의 宣傳 煽動을 「黨基本政策의 가장 緊急한 課題」이며 4) 「黨의 死活의 問題로 5)까지 만들어놓게 되었다.

註 2) 北韓의 主要對南宣傳內容과 對象別 煽動內容 그리고 具體的인 活動事例는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刊 「民主統一論」 才 6 部 才 3 章 204 頁~ 208 頁參照)

註 3) 「맑스·레닌」主義研究所, 「레닌」全集刊行委員會訳 「레닌」全集, 才 31 卷 東京大月書店 1962. 185 頁 『인터네이쇼날 才 2 回 國大會의 基本的任務에 關한 「테제」』

註 4) 前出 「레닌」全集 才 5 卷 356 頁

註 5) 「스타린」全集刊行委訳 「스타린全集」 才 2 卷, 東京大月書店 1953. 222 頁)

「맑스·레닌」主義의 충실한 信奉者로 自勉하는 北韓도 單 共產主義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宣傳과 煽動을 가리켜 「住民을 共產主義體制下에 結束시키는 가장 큰 武器」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또 事實上 그러한 宣傳과 煽動으로써 大衆의 思想方向을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注力하고 있는 宣傳과 煽動에는 전혀 客觀性이라는 것이 부여될 수가 없다. 6) 宣傳과 煽動은 오로지 共産黨의 方針과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만 그 存在意義를 갖는 것이며 그 자체가 社會主義建設의 過程, 즉 共産社會를 建設하기 위한 一般的인 努力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7) 따라서 그의 機能도 社會主義建設의 主導力인 黨에 귀착되어야 하고 黨의 路線과 方針과 指令만이 그內容의 全部를 決定할 수 있게 된다. 北韓의 경우 이는 곧 「조선 노동당 정치위원회」이며 政治委員會의 決定을 代行하는 곳은 黨中央委宣傳煽動部로 되어 있다.

北韓의 对内心理戰活動을 한말로 表示하자면 北韓체제의 優越性을 그곳 住民들에게 徹底히 認識시키려는 一切의 活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共產主義만이 社會發展과 全人民의 利益에 合致되는 絶對的이며 唯一한 思想이라는 것을 宣傳하고 그러한 共產主義社會를

註 6) Charles R. Wright; Mass Communic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59, p. 28 參照

註 7) Alex, Inkeles; ;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 139 參照.

建設할 수 있는 能力은 오직 조선노동당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그 노동당과 노동당밑에 뭉친 全人民을 成功的으로 領導할 수 있는 唯一한 指導者는 金日成이며 그를 따르고 믿는 길만이 共產主義體制를 마지막 勝利로 이끄는 길이라고 結論짓는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宣傳, 煽動內容을 조금더 具體的으로 說明하자면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共產主義思想과 理論을 注入시킴으로써 共產主義에 대한 誇大的 幻想을 가지게하고 歷史의 必然的的歸結로서 共產主義社會가 기필 實現되리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共產主義에 대한 盲信度가 크면 클수록 北韓政府에 對한 北韓住民들의 信賴度와 協力度는 커질 것이며 共產化統一에 對한 希望과 意慾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北韓의 社會主義建設成果를 誇張宣傳하는 한편 韓國의 現實을 最惡의 狀態로 소개해주는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南韓에 비해 北韓이 월등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北韓한테만 묶어두려는 目的에서 나왔다. 北韓의 國際的地位가 현저히 向上되고 있다는 誇張 宣傳이나 南韓이 南北韓全國民의 念願인 平和統一을 妨害하고 北侵戰爭準備에만 바쁘다는 虛偽宣傳등이 모두 이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宣傳의 또 하나의 效果는 北韓住民들에게 危機意識을 吹入해줌으로써 그들의 失敗에 對한 住民들의 關心을 轉向시켜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셋째는 金日成을 偶像化시키는 努力이다. 이른바 唯一思想 體系確

일을 위한 政治教養事業은 바로 金日成을 偶像化시키기 위한 基礎工
작이며 그의 一人獨裁體制를 強化하고 合理化하면서 金日成-노동당-
北韓政府로 이어지는 北韓의 統治體制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忠誠과
團結을 促求하자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列記한 세가지 각기 다른 宣傳, 煽動內容도 그
指向하는바 終着點은 하나밖에 없다. 序頭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終着點은 한국의 共產化統一이라는 것이며 北韓은 그 地獄을 向해
서 지금 全精力으로 내달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北韓의
努力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 틀림없다. 그저 繼續될뿐만 아니라
한국의 国力이 더욱 充實해지고 國際的地位가 더 向上될수록 그들
의 努力은 增加될 것이며 心理戰活動의 方法도 한층 교묘해질 것
이다.

II. 韓國의 對抗·積極心理戰

北韓의 心理戰活動의 궁극目標가 한국의 共產化統一에 있다면
한국의 心理戰活動의 최종目標는 南北韓의 自由民主主義化統一에 있
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共產主義와 自由民主主義라는 두가지 根本
的으로 相反되는 政治體制를 두고 對立된 싸움이기 때문에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은 한쪽으로 自由民主主義와 그의 信託者인 南韓의
虛弱點을 攻擊非難하면서 한쪽으로 共產主義와 그의 信託者인 北韓
의 長強點을 擁護讚揚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의 對北對抗心理戰活動은 ①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을 再確認하고

②共産主義의 虛構性을 立証하는 同時에 ③그들의 宣傳뒤에 숨은 眞實이 무엇인가를 具體적으로 例示함으로써 ④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의 浸透 效果를 最大限으로 滅殺하는데 力點을 두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이 南韓內에 共産化統一을 可能케 할 最善의 分위기를 造成해놓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함은 前述한바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최선의 分위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韓國의 國際的孤立과 南韓內의 混亂 야기 일단 有事時의 同調 呼応勢力 確保를 戒해오고 있다는것도 아울러 說明한바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南韓의 對抗策도 크게 나누어 세가지 方向으로 집약될수가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韓國의 國際的紐帶強化와 地位向上이며 둘째는 國內混亂의 防止 셋째는 北韓이 期待할 수 있는 南韓內 樞點의 分位이다. 國際的紐帶強化 특히 韓美, 韓日間의 善隣友好關係의 계속 유지를 強調하는 것을 南韓이 目標하는 自由民主主義化統一의 基盤이 될 對北優位の 国力培養을 위해서도 絶對不可欠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南韓의 自主國防, 自立經濟와도 直結되어 있는 問題이며 동시에 北韓의 武力行使를 事前에 預防할 수 있다는 點에서 對北積極心理戰의 一部로도 간주될 수 있는 活動이기도 하다. 또한 培養된 国力을 토대로한 韓國의 國際的地位向上과 그에 따른 信賴度提高는 相對적으로 北韓의 國際的地位를 弱화시키고 그에 대한 不信感을 造成할 수 있다는 副産物이 따르므로 北韓의 韓美 및 韓日離間에 對處한 우리의 對抗心理戰活動自体가 곧 對北積極心理戰活動이라고 해서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國內混亂의 防止는 두가지 側面에서 分析할수가 있다. 하나는 自體內의 矛盾이나 不合理性을 是正 除去함으로써 相對方에게 우리를 공격 비난할 資料를 提供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混亂造成策을 具體的으로 검토해서 現實的인 對備策을 강구하는 方法일 것이다. 이중 특히 自體內의 整理 強化라는 受動的인 秩序確保는 그自體가 바로 能動的인 對北宣傳이 될수도 있으며 國內輿論의 分裂을 막고 國民의 總和를 이룩하는데 큰 役割을 할수가 있다. 흔히 過去에는 이러한 目的의 達成策으로 다분히 口號化된 傾向이 濃厚한 反共思想이나 勝共思想의 昂揚을 제창해왔고, 理由의 뒷받침이 결여된 國民的團結을 促求하면서 이 길만이 國內의 混亂을 막는 唯一한 길인것처럼 強調해 왔었다. 물론 勝共思想의 昂揚이나 國民的團結이 必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感情的인 呼訴에 치우친 反共宣傳이나 自己體制의 充實을 同伴하지 못한 勝共思想의 昂揚이 그다지 큰 說得力을 가진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나 輿論의 分裂을 助長하는 要素를 內包한채 國民的團結만 強調해 봤댔자 그實이 걸우어질 수 없을것은 정한 이치인 것이다. 自體內의 矛盾과 不合理性을 是正 除去한다는 것은 바로 自由民主主義體制의 理念과 實際를 精確하게 지켜나간다는 말과도 같다. 自由民主主義體制에 어긋나는 兪事를 자행한다면 그 事實하나만으로도 充分히 混亂의 根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輿論의 分裂 秩序의 破壞등으로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에 좋은 溫床을 提供해주는 結果가 될 것이다. 共產主義에 대한 體

系的이고 理論的인 批判도 좋고 北韓의 偽裝된 平和統一案이나 戰爭進備相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協商戰略의 危險性을 깨닫게 해주는것도 南韓內의 思想的混亂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는 方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自由民主主義體制에 대한 確固한 믿음을 그대로 품게 키워주고 어떠한 形態로든 國民에게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體制에 대한 脊信感같은 것을 느끼지않게 해주는것이 더 切實한 混亂防備策이 될 수 있겠다. 말하자면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이 노리고 있는 革命情勢의 造成을 막는 最善의 方法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優越性을 실지로 實現시켜 보이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말해서 一黨獨裁體制의 나쁜점을 백번 말하는것 보다 自由民主體制에 대한 懷疑感을 가지지 않도록 그 信賴度를 높여주는것이 더 効果的인 對北對抗心理戰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韓國의 心理戰活動은 그 自体가 同時에 北韓이 期待하는 南韓에서의 同調 呼應勢力確保를 水泡化시키는 最善의 길이기도 하다. 北韓에 대한 同調내지는 呼應을 可能케하는 最大의 原因은 南韓에 대한 政治的, 經濟的 不滿이나 不平에 있다. 이와 같은 不平과 不滿은 韓國이 信奉하는 自由民主主義體制에 대한 不信感을 낳게할 수 있으며 그 不信感은 우리가 가진 體制의 優越性을 못믿게 만들어 그네들이 가진 體制에 대한 莫然한 期待感을 誘發할수도 있게 한다. 北韓의 對南心理戰活動 특히 謀略과 流言蜚語등 故意的이고 組織的인 危險意識造成을 目的으로한 宣傳方法은 이러한 動搖層을 對象으로 해서 相當히 큰 効力を 나타낼 수 있게 된다. 多幸

히 한국國民의 大部分이 6.25 事變이라는 貴重한 經驗을 통해서 共產主義支配下에서의 生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는 하나 自由民主主義體制의 政治的, 經濟的優越性을 間斷 없이 느낄 수 있는 政治가 隨伴되지 않는限 그네들의 宣傳이 과고를 余地는 언제나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의 守護가 비단 한국 의 對北 對抗心理戰의 核이 될뿐만 아니라 積極心理戰의 中樞도 아울러 兼해야 한다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對北 積極心理戰은 다시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北韓의 對內心理戰活動에 대한 妨害工作이며, 둘째는 南韓의 優位性을 그곳 住民들에게 認識시키기 위한 工作이다. 첫 번째 테두리 속에는 一黨獨裁體制의 橫暴와 金日成의 偶像化를 軸으로한 이른바 唯一思想體系가 얼마나 虛妄한 것인가를 批判하는 活動이 포함될 것이며 그들의 自家宣傳의 誇張性과 歪曲性을 알려 주는 工作이 들게되는 것이다.

再論할 필요도 없이 北韓과 같은 全體主義國家에서는 事實上 國家가 唯一한 宣傳者로 君臨하면서 反對의 宣傳을 嚴禁하고 官製宣傳만으로써 國民의 意識을 一方的으로 強制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暴力的인 權力行使의 支配를 오래 받은 北韓住民들은 意識의 規格化로 인한 批判力喪失의 傾向을 띄고 있다. 卽 政治를 비롯한 社會의 모든 領域에서 強力한 統制와 支配를 받아들인 結果 그들의 價值意識과 行動樣式이 規格化되고 그것은 潛在的 恐怖感을 주기위한 「테러」와 더불어 支配者에게 盲從할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믿

음을 주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住民들의 意識構造를 念頭에 두지 않고서는 南韓의 對北積極心理戰活動은 그 所期の 效果를 견우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마비되어 있는 意識이라고 할지라도 自由를 向한 人間本能마저 抹殺되어 있지 않을것을 分明하다. 權力行使가 強壓的이면 強壓的일수록 그行使하는 手法이 單線的이면 單線的일수록 抑壓에 對한 潛在的 反撓力은 正比例해서 強해질수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對北積極心理戰活動은 그러한 人間本能에의 直接的인 呼訴에 力點을 두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自己네들이 處해있는 位置가 어떠한 것인가를 他體制下에서의 그것과 比較관찰할 수 있도록 具體的인 資料를 提供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自由를 갈망하는 人間本能을 일깨워주는 것은 곧 자기가 속해있는 體制에 對한 不平과 不滿을 싹트게 함으로써 誇張宣傳 虛偽煽動을 가려낼줄아는 批判力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 體制에 對應되는 他體制에 對한 동경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Ⅲ. 海外에서의 挑戰과 對應

宣傳과 煽動을 獨裁權力의 正當化와 合理化를 위한 가장 主要한 武器라고 믿고있는 共產黨은 對內, 對南 宣傳煽動에 못지않을만큼 對海外宣傳에도 注力하고 있다. 北韓은 한편으로 社會主義國家들간의 紐帶強化와 共同行動의 原則을 提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反韓國政府宣傳과 國際的인 反美輿論形成을 획책하고 新生 「아시아」 「아프리카」 諸國 및 南美諸國을 包含한 所謂 非同盟國群을 이용해서 그 心理戰活動의 效果를 極大化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展開하고 있는 對海外心理戰의 目標은 韓國의 國際的地位向上을 阻止하고 그의 威信을 추락시킴으로써 國際的으로 孤立化시키자는 것이며 다른한편 그들 자신의 現在 孤立化되어 있는 國際的 位置를 挽回해보려는데 있다. 그들이 北韓을 地上樂園처럼 선전하고 南韓을 暗黒天地에다 비유하는것같은 虛偽性은 또 心理戰이 가지는 役割의 性質上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6·25 事變을 大韓民國側이 挑發한것처럼 海外에 宣傳하는 것이라든지 美軍이 南韓에서 약탈과 暴行을 일삼고 있는것처럼 國際社會에 告發하고 있는 事實들은 오히려 그들의 單 宣傳 煽動까지도 신빙성을 잃게 만드는 無理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美軍에 대한 이러한 非難은 美軍撤収要求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口實을 造作하려는데서 나온것인데 이에 못지않게 北韓이 입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 數日間의 離間策이다. 그들이 數日間의 國交正常化를 끝까지 집요하게 反對한 理由는 ①東北亞細亞機構(NEATO)가 共產陣營의 防衛態勢에 直接的인 威脅을 주고 ②在日 朝總聯의 保護에 墜跌을 가져오며 ③共產化統一이라는 北韓의 統一方案에 障害을 준다는것등이었다. 國交가 正常化된後에도 그들은 繼續 日本이 「남조선을 자본에속화하고 식민정책을 부활하고 있다」고 공격의 「램프」를 ouch지 않

고 있는 것이다. 9)

특히 合法的인 法體制下에서 朝總聯의 組織을 통한 韓日關係離間 策動과 広範圍한 反韓國 政治運動 및 社会運動은 韓國측의 積極的인 對抗活動에도 불구하고 一部 左傾 日本人과 韓國의 実情을 모르는 一部 在日同胞들 사이에 약간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北韓의 對海外心理活動의 對象은 海外同胞, 韓國留學生, 海外駐在 韓國公館員과 各種 韓國인 派遣官 各國共產主義者 및 組織體 各國 政府機關 및 學團 左翼系書店과 圖書館 各國言論機關 및 言論人 등 그 範圍가 매우 넓고 多採로우며 活動手法도 北韓의 海外駐在官이 直接 對象人物이나 組織體에 接近한다거나 國際航空便에 의한 浸透, 展示會와 體育을 비롯한 文化·藝術活動의 交換等 動員할 수 있는 모든 經路를 動員한 多樣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所要되는 金額도 莫大한 것이며 적어도 이점에 關한限 아직 韓國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다. 事實 質은 차지하고서라도 量的인 면에 있어 지금까지 北韓의 對海外宣位은 韓國보다 언제나 優位에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事實은 「조선노동당」의 一黨獨裁體制가 予算, 人力, 組織, 機能等 宣傳煽動活動에 필요한 要件마련에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음을 立証해주는 것이다.

註 9) 韓日會談에 대한 共產圈의 反響과 그 具體的인 宣傳內容 및 方法은 「共產主義問題研究」 卷才 4 号 「北韓에 있어서의 宣傳煽動機權과 對南政策概要 金鎮昇」 중 117 頁~ 118 頁參照)

그렇다고 이에 對處하는 한국의 對應活動이 北韓의 蠱的攻勢에 全적으로 눌려있었다거나 그들의 謀略性, 虛偽性을 반박하지 못했다 는것은 아니다. 그들의 多邊外交에 지지않을만큼 활발한 多邊外交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國際的인 地位를 向上시켰고 平和統一을 追求하는데 있어서의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여 國際的인 信賴度를 높였다. 人道主義에 立脚한 南北赤十字會談의 主導등은 武力을 배척하는 한국의 基本的인 態度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世界의 好感을 샀으며 그와 같은 한국의 여유가 培養된 國力の 뒷받침으로 이루어졌다는 点에서 南韓의 實情을 歪曲 誇張되게 宣傳하는 北韓의 宣傳煽動을 封鎖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金日成을 民族의 英雄으로 偶像化시킬때 한국은 拘束받지 않는 人間의 尊嚴性을 擁護하였고 그들이 「如何한 法律에도 拘束받지 않는 絶對的인 独裁權力」을 구가할때 한국은 自由民主主義의 「이미지」를 扶植시키는데 努力하였다. 그들이 提唱하는 民族自決原則에 는 民族의 主体性確立으로 答하였으며, 虛偽에는 眞實로 量에는 質로 맞설 進備를 갖추어놓은 것이다.

第六章 戰略·戰術面의 評面

I. 目標設定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北韓의 心理戰活動의 窮極的인 目標은 韓國의 共產化統一에 있으며 反對로 韓國의 그것은 韓半島全體의 自由民主主義化統一에 있는 것이다. 北韓의 目標을 조금더 단계적으로 要約하자면 對內的으로는 自體內的 社會主義的 改革을 整備強化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反帝, 反資本主義革命鬪爭을 앞장세워 全國적으로 그들의 革命拠点을 擴大함으로써 共產化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그들의 目標과 戰略은 「조선노동당」의 規約 第1章에도 明記되어 있고 金日成의 訓示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卽 노동당 規約 第1章에는 黨의 當面目的이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의 課業을 完遂하고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 고 했으며 다시 이를 부연해서 「民主基地를 政治經濟的으로 強化하여 祖國의 統一을 促進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民主基地 強化에 力點을 두는 것은 그것이 바로 共產化革命의 原動力이요 基地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金日成이 주장한바 「民主基地의 強化는 祖國統一의 결정적 擔保이다. 民主基地 強化에 대한 구호는 우리 祖國이 統一될때까지 繼續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平和的 統一에 대한 노동당의 방침」을 밝힌 글속에 「민주기지로선은 미제를

反對하는 革命鬪爭에서 북반부를 政治, 經濟, 文化, 軍事的으로 또
 는 사상적으로 強力한 반제국주의 역량으로 전환(轉變)시키며
 그를 나라의 통일獨立을 쟁취할수 있는 결정적 역량으로 강화하는
 노선」이라고 밝혀져있는 것이 모두 그들의 意圖를 說明해주는
 것들이다. 10)

民主基地의 強化가 그들의 对内心理戰의 첫 課題라면

① 南韓内에 同調, 呼應勢力을 確保해서 統一戰線을 構成하고
 ② 美國을 비롯한 「外勢」를 排除하고 ③ 南韓의 社會秩序를
 교란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對南心理戰의 基本課題라고 하겠다. 이
 러한 對南心理戰의 課題 역시 「조선 노동당은 南北조선의 廣範한
 人民大衆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勞動同盟을 기초로한
 全조선의 各계 各층 愛國的 民主역량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함으로
 써 우리나라 남반부를 미제국주의 侵略勢力과 國內반동봉치로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的 기초위에서 조국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라고 「조선노동당」 規約에 못박아두고 있는 것
 이다.

南韓에는 一黨獨裁下의 執權黨인 北韓의 「조선노동당」과 같은
 政黨도 존재하고 있지않을뿐만 아니라 그의 한말이 바로 法令과도
 같은 効力을 가지는 金日成과 같은 獨裁者도 存在하지 않는다.

註 10) 金日成 「조국의 平和的 統一에 대한 우리黨의 方針」
 평양, 國立出版社, 1962, 263頁)

따라서 独裁党에 의한 对内·外心理戰活動의 目標 設定도 独裁者에 의한 그의 方向提示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憲法과 國是가 指向하는바 自由民主主義体制의 守護는 韓國의 对内·外 心理戰活動의 最終目標가 전한국의 自由民主主義化 統一임을 明白히 하고 있다. 即 对内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 体制의 優越性を 昂揚하고 对北宣傳의 当面課題로는 金日成一党 独裁의 不榮理性을 밝히면서 抑压에 항거할 수 있는 自由애의 동경심을 北韓住民들이 가질수 있도록 啓導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自由民主主義 体制의 優越性を 再確認한다는 것은 이体制에 逆行되는 一切의 要因을 政府施策面에서 排擊함으로써 國民에게 어떠한 種類의 背信感도 일지않게 만드는 것으로 北韓의 「民主基地 強化」活動에 해당된다. 그리고 北韓내에 自由化바람을 불려이르키려는 目標設定은 北韓이 南韓내에 革命拠点을 雜保하려는 目標設定과 거의 対応되는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Ⅱ. 內容과 形式 및 技法

北韓의 心理戰 宣傳의 內容을 基本目標別로 分類하자면 다음과 같이 大分된다.

(1) 外勢排擊

이 外勢排擊이 目的하는것은 6.25 事變에서 얻은 쓰란린 經驗 即 民主 反邦國家에 의한 对韓援助를 일단 유사時에 다시

되풀이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副次的으로는 韓國의 國際的孤
立化를 劃策하자는 것이다. 이 범주에 屬하는 宣傳으로는

① 大韓民國으로 부터의 美軍 全面撤收主張

② 反美感情을 造成해서 韓美關係의 離間을 助長하는 宣傳
이 속에는 美軍의 韓國人에 대한 雇傭, 賃金條件을 最惡의 것이라
고 非難함으로써 韓國人의 民族感情에 불을 지르려는 宣傳과 一
部 美軍들의 脫線行爲를 紹介하여 韓國人의 反美感情을 誘發시키
려는 宣傳이 包含된다.

③ 韓日國交正常化를 根本的으로 否認하고 日本에 對한 韓國
人의 不信感情을 助長시키려는 宣傳. 이 중에서 가장 強調되는것
이 日本이 經濟的으로 再次 韓國을 植民地化하려 試圖하고 있다는
點이다.

④ 美國의 極東政策과 韓國의 對越南政策을 好戰的인 行爲로
規定지워 韓國에 대한 몇몇 中立國의 感情을 惡化시키고 相對的
으로 그들의 「平和擁護」 姿勢를 誇示하려는 宣傳등을 들 수
있다.

(II) 南韓의 社会的 混亂造成

混亂造成의 目的은 南韓內에 所謂 그들이 말하는 革命的
분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具體的인 实例

① 南韓政府에 對한 國民들의 不信感助長

大韓民國政府를 「獨裁」 또는 「괴뢰」 政權이라 부르고

이들의 「壳国, 壳族」 行為가 반드시 「國民을 기만하고 착취하고 배반」하는 것으로 落札될것이라는 宣傳

② 소위 「自主的 平和統一」이라는 民族主義的인 色彩로 偽裝된 方案을 提示해놓고 南韓内の 統一에 대한 國論을 分裂시켜보려는 宣傳

③ 南韓의 實情을 나쁜方向으로 部分擴大해서 宣傳하는것 등이 있다.

(Ⅲ) 民主基地 強化와 革命拠点 擴大

民主基地 強化는 前述한바 처럼 北韓住民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結束武裝시키기 위한 것이고 革命拠点 擴大는 南韓의 一部 不平, 不滿分子를 包摂, 有事時의 同調, 呼応勢力으로 確保하려는 것이다. 이속에는

① 金日成의 偶像化와 唯一思想體系를 合理化시키려는 思想敎養 宣傳

② 共產主義의 優越性과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相을 誇示하는 自家宣傳

③ 北韓住民의 勞力動員을 最大化시키기 위한 煽動과 南韓의 鄉土豫備軍組織, 大學生들의 軍事訓練등을 모두 南韓에 의한 北侵準備 行爲로 規定지으므로써 北韓住民들에게 危機意識을 불어넣고 北韓의 戰時體制確立을 正當化하려는 宣傳등이 들어간다

以上에서 列記한 北韓의 모든 心理戰宣傳은 그들의 社會體制가

그러하듯이 그 形式에 있어서도 劃一性과 單一性을 면할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같은 內容의 集中的이고도 連續的인 반복, 自己내들의 判斷을 絶對視하고 相對가 누구이든간에 下向式으로 強壓하는 傾向. 表現의 極烈的이고 強硬한데서 볼 수 있는 非妥協性등이 하나 같이 北韓의 宣傳活動을 特性짓는것들 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에 反해서 韓國側의 心理戰活動은 比較的 劃一化되어 있지 않고 複合的이다. 이러한 特性은 勿論 自由民主主義라는 政治体制가 지닌 特殊性을 반영해주는 것인데 그 結果 宣傳의 形式이나 기법에 있어 北韓과는 아주 좋은 對照를 이루게 된다. 우선 北韓의 宣傳이 與論의 自意대로의 造作을 目的으로 하는것과는 달리 韓國의 宣傳은 既存하는 與論을 理解하고 그에 호소하려는 態度를 취한다. 그래서 表現하는 形式도 下向的이 아니라 上向的이며 強壓的인 說得이 아니라 妥協的인 勸告에 依친다.

예를 들어 北韓의 宣傳은 共產主義의 絶對的인 必然性を 強調하고 그 對象者들로 하여금 그말을 믿지않을수 없도록 操作하는것 이지 만 韓國의 宣傳은 自由民主主義 体制의 相對的 優越性を 主張하고 그것을 立証할만한 各種 資料를 提示할뿐 最終的인 判斷은 끝내 그 宣傳對象者들의 스스로의 判斷에 맡기고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宣傳用言語의 選擇에 있어서도 極烈的이거나 지나치게 感情的인 것을 避하고 가급적 온건하며 理性的인 것을 挾한다. 비록 宣傳의 効果를 높이기 위하여 이따금씩 같은 內容을 集中的으로 되풀이 하는 例가 없는것은 아니나 그것도 宣傳對象者의 反應을 수시로

計算해가면서 行하는 수가 많다.

이와같은 韓國側 心理戰活動의 特徵을 念頭에 두고 그 宣伝內容의 하나 하나를 檢討해 볼때 조금 더 그에 대한 理解度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大體로 韓國의 對北宣伝은 標語的인 혹은 口號的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진다. 실지로 統一院에서 整理한 對北心理宣伝의 內容을 일별해 보더라도 잘 精選된 標語나 口號같은 것의 羅列이 있을뿐 北韓의 對南韓宣伝에서 보는것과 같은 詳細하고 具體化된 內容의 提示는 전혀 없는것이다. 가령 그 標語나 口號같은 宣伝要綱을 6個項目으로 나누어서 ① 金日成一黨獨裁體制的 崩壞促求 ② 北韓內反抗勢力 擴張 ③ 北韓內反戰 「부드」造成 ④ 北韓의 南侵計劃 粉碎 ⑤ 北韓內 自由化 暴動 誘導 ⑥ 人道的 南北會談 與件造成이라고 하고 그중 別다른 補充說明없이도 具體的인 宣伝方策을 豫測할 수 있는 것은 不過 한, 둘에 더하지 않는다. 11)

마지막 項目인 「人道的 南北會談의 與件造成」은 南北間의 離散 家族찾기 運動을 추진한 赤十字會議에서의 우리側主張이 바로 그 宣伝內容이라고 보아도 될것이고 첫째 項目인 「金日成一黨獨裁의 崩壞促求」는 또 그런대로 理論的인 共產主義 批判과 自由民主主義 옹호論으로서 대치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4個項目의 宣伝

註 11) 「民主統一論」 前出 211 ~ 212 頁 參照.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또 앞으로 할計劃인지
도시 종잡을수가 없는것이다.

北韓의 心理戰活動이 비록 수많은 欺瞞性과 虛偽性을 그 手段으로 採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共產主義自体가 党的 死活과 結付시켜서 強調하는 그들의 宣傳煽動을 아직 大衆속으로 파고들수 있는 傳播力을 가질수 있다는 점에서 充分히 再檢討되고 研究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例컨데 그들의 客觀的 情勢變化에 재빨리 順應하는 戰術 卽 革命情勢의 昂揚期에는 「뽀이코트」등 積極的인 鬪爭戰術을 쓰고, 革命氣運의 退潮期에도 妥協, 平和, 民族등을 앞세워 広範圍한 大衆包摂에 나서는 作戰이라든지 「내용은 社會主義의이면서 形式은 民族的」인 것으로 假裝하는 戰術과, 내용은 共產黨一色이면서 表面은 民族統一戰線인것 처럼 꾸미는 戰略도 심분 研究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언제나 動搖가 심한 知識層을 心理戰攻略의 主對象드로 삼는 戰法이라든지 攻擧의 主砲門을 언제나 相對方의 가장 弱點一面에다 集中시키는 方法, 政治鬪爭 理論鬪爭 經濟鬪爭을 가장 効率的으로 配合할출아는 三位一體 鬪爭方法같은 것은 南韓側 心理戰體制가 경우에 따라 利用할 수도 있는 戰略이라 할 것이다.

Ⅱ. 效果의 側定

心理戰 活動은 그活動의 對象者들이 가지고 있는 思想이나

態度, 價值觀 등에 어떤 統制를 加함으로써 活動主体측한테 有利한 方向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자는 手段이다. 卽 對外的으로는 相對方 住民들에게 士氣低下, 相互不信, 分裂, 價值觀破壞, 思想轉換 을 이르게하여 反政府, 自体否定的 行動으로 나오도록하고 對內的 으로는 國民들을 一定한 目的을 向해서 統一된 思考와 行動을 가 지고 나가도록 획책하는 것이다. 따라서 心理戰活動의 效果의 測定은 언제나 相對的인 것이 된다. 相對方的 對外心理戰과 우리쪽의 對內心理戰을 서로 比較하고 그와 똑같이 우리쪽의 對外心理戰과 그 들의 對內心理戰을 比較해서 각기 그 效果의 크기를 재고 相殺하 는 綜合的인 測定이 必要한 것이다. 勿論 이와같은 效果의 比較, 測定은 그것을 可能케 만드는 共通된 基準의 設定이 어려우므로 매 우 추상적인 것이 되기쉬우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흔히 우리는 心理戰活動의 一次的인 目標을 一括해서 對象者들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의 유지 또는 變更에 두고있지만 不特定多數人 인 그 對象은 많은 類型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라서 心理戰活動이 期待하는 效果도 그 類型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對象者의 類型을 가령 ① 同調者 ② 動搖하는 同調者, ③ 傍觀者 ④ 動搖하는 反對者 ⑤ 反對者, 다섯으로 分別 할때 같은 內容의 宣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라는 效果는 對象 者의 類型에 따라 각기 다르게 되어있다. 이 중 同調者와 反對者 는 大體로 처음부터 宣傳의 主對象에서 除外하는 수가 많고 또

傍觀者에 대한 効果의 期待도 크게 잡지않는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全的으로 度外視해도 좋은것은 아니다. 비록 同調者라 할지라도 繼續 그를 우리쪽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情勢變化에 따른 狀況說明등 얼마간의 啓蒙宣傳이 必要할 것이고 一部 徹底한 反對者를 除外한 反對者한테도 集中的인 宣傳은 매우 效果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徹底한 反對者와 動搖하는 反對者사이에 뚜렷한 線을 긋는 것이 어려운 경우 「反對者」를 「動搖하는 反對者」로 만들기 위한 努力이 반듯이 있어야 하는것이기도 하다. 類型別로본 心理戰活動의 效果는 既存 同調者를 繼續 確保 하던서 ① 「動搖하는 同調者」를 「同調者」로 만들고 「傍觀者」를 「動搖하는 同調者」내지는 「同情者」로, 「動搖하는 反對者」를 最少한 「傍觀者」로, 「反對者」를 적어도 「動搖하는 反對者」 정도까지라도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類型에 의한 分類가 아니더라도 一般的으로 心理戰活動은 相對方의 氣勢를 꺾고 우리측 氣勢를 올리므로서 敵의 分裂과 我方의 團합을 돕는다는 보편적인 效果를 가지게 된다.

北韓과 南韓의 心理戰活動을 評價함에 있어 우리는 兩側이 가진 心理戰活動의 強弱點을 규명해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強弱點의 규명은 同時에 어떠한 活動이 어떻게 效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떠한 要素가 效果增大를 阻害하는 것인지를 說明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北韓이 가진 心理戰活動에 있어서의 強點은 그 機構가 一

元化되어 있으며 莫大한 豫算의 뒷바침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宣傳, 煽動自体가 共產主義의 基本的 理論과 直結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黨과 政權의 死活問題라고 까지 強調되고 있는 그곳에서는 心理戰 活動기구의 一元化나 莫大한 豫算의 뒷바침같은 것은 오히려 當然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獨裁基盤을 이룩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指導 體系가 長期間 強力하게 維持되고 있고 그 노동당을 頂点으로 하는 行政, 社會團體 및 그 支援部署의 宣傳體系가 極히 組織的이며 長期間 訓練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強点이다. 黨이 定한 心理作戰을 모든 宣傳機構가 하나같이 같은 方向으로 밀고 나갈 때 더우거나 國家와 法이 이를 強力히 뒷바침해주고 있을 때 그 活動이 效率的일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같이 強力한 心理戰 機構는 그와같은 것을 갖지 못한 南韓의 立場에서 볼 때 큰 危脅的 存在로까지 비칠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이 큰 強点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南韓이 自身の 弱点이라고 간주해야 할 점은 그곳에서의 社會構造가 外部로부터의 影響力 침투를 막기에 疎忽되어있다는 것이다.

細密한 相互監視組織과 徹底한 保安措置는 韓國側의 心理戰活動이 파고들어갈 餘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다. 이에 덧붙여서 大多數 自由民主主義者들의 越南으로 인한 指導級 同調勢力의 虛弱함과 많은 北韓住民들이 抑圧되어있는 現狀態를 非正常的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만큼 洗腦되어있다는 事實은 南韓을 위해 極히 悲觀的

인 要素를 提供해주고 있다.

그러나 南韓側이 가지는 強點도 결코 北韓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앞서워야 할것은 南韓國民이 6.25 事變이라는 山 經驗을 通해서 北韓治下에 있어서의 苛酷한 人權蹂躪과 人間의 尊嚴性의 否定을 體得했다는 事實이다. 뿐만아니라 北韓의 實情을 南韓의 그것과 比較해서 알려주는 많은 越南者, 歸順者, 自首者들이 있으므로해서 對內心理戰 活動에 貴重한 도움을 주고있는데, 強點을 지니고 있다.

앞서 우리는 自由民主主義者들의 大量越南으로 北韓에서의 指導級 同調勢力이 虛弱해 진것을 北의 強點이며 南의 弱點으로 간주한바 있지만 이를 다른 角度에서 따져본다면 그 反對 역시 成立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越南者家族를 비롯한 反革命分子, 不純分子등 지나친 階級政策으로 말미암은 北韓政體에의 敵들이 有事時의 南韓 同調勢力으로 뿌리깊게 퍼져있다는 事實은 北韓을 위해 不利한 點이며 南韓에겐 큰 強點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心理戰活動에 있어 그들의 強點으로 꼽힐 強力한 一黨獨裁體制와 組織力도 被抑壓者들에게 潛在的인 欲求不滿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點에서는 그들의 弱點이요 우리의 強點이 될수가 있겠다.

以上과 같이 그들과 우리와의 心理戰活動上의 強, 弱點의 比較는 彼此의 心理戰 攻防이 어디에다 力點을 두어야 할것인가를 보여주는 同時에 過去의 活動이 어느 部面에서 어느만큼 눈에 보

이지않는 効果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짐작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測定者의 主觀이 많이 作用될 心理的活動의 効果測定은
直接的이 아닌 間接的인 方法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結果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結 論

狀況判斷 및 与件造成에 관한 建議

I. 和戰의 岐路와 北韓의 對南心理戰動態

韓國의 對北韓政策은 바야흐로 和戰의 択一에 直面한것 같은 重要한 고비를 맞이한 느낌이다. 그것은 全的으로 南北對話의 歸趨와 北韓측의 冒險的 對南政策의 展開樣相에 달려있다. 우리의 對北心理戰도 和戰兩様, 攻守兩面에 걸쳐 原則的이고도 伸縮性있는 方策을 가다듬어야 할 緊迫한 段階에 이르렀다.

그리고 「孫子」兵法에 「知彼知己百戰不殆」(敵을 알고 自身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한것은 心理戰에도 該審되는 말이다. 이것은 情勢判斷만을 가리킨것이 아니라 發展的으로 解枳하자면 攻守兩面에 걸친 主体的 및 客觀的 條件形成을 強調하였다고 풀이된다.

우선 情勢判斷이라는 視角에서 北韓이 벌이는 心理戰의 樣相을 分析, 整理할 必要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은 애당초 自由民主主義와는 敵對的 이면서도 南韓에 自由와 民主主義가 없다고 소리꾼이 웨쳐왔다. 또 그들은 韓國이 마치 美國과 日本에 從屬되어있는양 떠들고 있다. 그것은 「레닌」이 남긴 心理戰에 관한 格言, 즉 「帝國主義者들 間에 存在하는 對立과 矛盾을 利用하는 方法을 헤아려야 한다」는 手法에 執着했음을 말하여 준다.

北韓은 또 對內的으로 그곳 住民의 「非政治化」를 몹시 警戒하고 있으며, 尙시 「思想的武裝」態勢를 強調, 全人口의 1割에 達

하는 所謂「宣傳, 煽動일뿐」들을 活用하고 있다. 이것은 「레닌」이 말한바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成功한것은 強制와 說得을 結附시키는 方法을 헤아렸기 때문이다」라 한 「教訓」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觀測된다.

그러나 北韓의 對內心理戰에서 決定的 弱점이 發見된다. 그것은 苛酷한 「階級路線」을 強行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云謂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내지 純粹한 「基本成分」의 比率이 全人口 中の 半數未達은 고사하고 約 10% 남짓에 不過하다는 事實이다.

여기에서 北韓은 1950年代에 實施한 「中央黨 集中 指導」事業 이니 60代에 強行한 「住民再登錄」事業등을 통해 「敵我分別」을 위한 「成分調査」을 벌이다가 그 集計數字에 當황하여 곧바로 金英柱 指導下에 所謂「뚜껑 벗기기」運動이라는 撫摩工作을 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다음 金日成의 直接呼訴로 所謂「全人民의 勞動階級化」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에 成分이 「複雜한 群衆」이 많다는것은 36年間이라는 長期에 걸친 日帝植民地 統治, 國土兩斷, 6.25 動亂等 重疊된 諸事情의 結果였다. 그리고 北韓住民들의 成分構成에 보는 複雜性은 우리의 對北心理戰 呼訴 또한 各階層別로 多樣化할 必要性이 있음을 생각해 한다. 그 具體的 諸方案의 問題狀況은 앞서 本論에서 考察하였다.

어쨌든 北韓은 對南宣傳에서 野心的인 「南朝鮮革命」을 거친 赤化統一을 推進하고자 「反政府」運動의 煽動과 「統一戰線」形成工作에 매우 분망하며 나아가서 反美, 反日 「캠페인」에 餘念이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北韓의 對南冒險은 南韓에 가령 「第2의 4.19」나 「第2의 5.16」등 事態가 發生한다면 政府측의 「流血彈壓」을 糾彈하는 宣傳을 벌이고나서 이른바 「南朝鮮人民들의 支援要請」을 받아들인다는 形式으로 敢行될 可能性이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에도 6.25 南侵처럼 釜山目標의 無謀한 攻勢는 삼가고 그대신 中東 17日戰爭의 逆「케이스」를 노릴것 같다. 즉 奇襲, 正規軍攻勢로 例컨대 漢水以北을 占領하고 強大國 幕後交涉을 거쳐 「現状休戰」을 實現시키고자 할는지 모른다. 勿論 그와같은 正規軍에 의한 局地占領은 南韓의 全後方에 대한 海, 空을 통한 共匪投入과 配合될 것이 내다보인다. 그리하여 南韓을 混亂의 도나기로 몰아넣고 끝내 「南朝鮮革命情勢」를 造成하려는 그들의 打算을 짐작케하는 여러가지 徵兆가 나타나고 있다.

하기야 아직은 그러한 事態發展은 한 可能性의 想定이며 放心할 수 없다는 問題狀況의 일깨움일 따름이다. 現段階에서는 南北對話의 統開에 대하여 完全한 絶望을 말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한편 北韓의 對內宣傳은 이른바 「金日成主席을 首班으로 하는 党中央委員會」의 領導에 대한 無條件的 信賴와 忠誠의 鼓吹에 歸一된다. 그들은 또 統一問題에서 北韓政權의 唯一正統性 主張을 普及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北韓의 心理戰에 보는 綱領的 要因을 整理,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民族獨立」과 「民主主義」의 「심볼」操作

② 그 象徵的 人物로서 「朝鮮人民의 革命的傳統」을 體現한다는 金日成에 대한 個人 崇拜의 助長.

③ 「唯一思想體系」 즉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에 관한 宣傳의 信念化.

④ 그 正統性 主張에 잇들인 反南韓政權, 反美, 反日의 「스테리오타이프」 造作.

⑤ 「群衆路線」을 통한 北韓住民의 大衆的 積極性 및 参与意識 鼓吹.

⑥ 이른바 「共產主義的 人間型」 또는 「새型의 人間」 鑄造.

⑦ 對南宣傳에서는 北韓을 唯一한 統一勢力으로 描写하는 동시에 韓國政權을 統一不願, 隸屬政權으로 規定지으려는데 力點을 두고있다.

⑧ 教條的이며 我用引水격인 情勢判斷에 立脚, 韓國의 現政權이 「四面楚歌」와 「民心離脫」속에 오래 持續되지 못한다는 印象을 蔓延시키고 있다. 이로부터 北韓측은 1973年 8.28 聲明으로 南北對話를 中斷시킨 然後에 계속 極烈的表現으로 對南誹謗을 그치지 않고 있다.

⑨ 統一戰線에 관한 呼訴 및 工作으로 「主要敵」의 孤立化, 「中間層」의 中立化 내지 抱擁, 「革命勢力」의 扶植 및 擴大를 노리고 있다.

II. 對話統開 위한 誘導와 間接的 「어프로우치」

그와 같은 北韓의 心理戰動態와 그것에 잇들인 對南 路線의 危

險要因을 勘案할적에 韓國과 周辺強大國들이 北韓측을 다시 南北會談의 「테이블」에 끌어내어 앉힐수 있다면 큰 成功임을 말할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에 不利한, 즉 그들의 固執이 通用될 수 없는 어떤 客觀的 條件變化가 發生한다면 이를 契機로 捕捉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측이 能動的으로 巨視的 眼目에서 보다나은 條件을 形成하고나서 行動을 積極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對話統開을 위한 條件形成努力에서는 다음과 같은 當面着想이 可能할 것이다.

(1) 金大中事件을 早速히 完全하게 매듭짓는다. 즉 보다큰 「플러스」를 回避하기 위해 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選擇하는 方向設定을 생각할 수 있다.

(2) 우리의 對話陣容을 改編한다.

(3) 軍事的對峙狀態의 緩和와 軍事費負擔등의 輕減을 위한 어떤 措置를 취할 수 있다는 印象을 北韓측에 賦與하면서 일종의 「플러스」를 던진다.

나아가서 北韓의 背景國들인 蘇聯, 中共등으로 하여금 北韓에 대하여 對話統開, 緊張緩和의 壓力을 加重토록 誘導하는 努力은 韓國과 그 兩大國間의 關係改善布石에 結附된다.

그들의 對韓不信, 敵對感情은 그동안 「이데올로기」差異와 韓, 蘇 特殊關係에 緣由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差異로 말하면 蘇聯, 東歐國이 共產黨을 不法化한 나라와도 적지않게 「友好」關係를 設定했으며, 西獨과의

国交正党化도 뚜렷하다는 局面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
 켜든 그 問題를 且置할적에 남는 것은 韓國의 对美「隸屬」印象
 에 대한 反撥과 共産北韓의 눈치 뿐이다. 한편 우리에게 機會라
 고 생각되는 것은 ① 中, 蘇紛糾의 戰事危機 와 加一層 深刻化
 ② 共産圈내 「스탈린」主義体制 固執努力에 대한 蘇聯, 東歐國의 빈
 축 ③ 北韓의 中共一辺倒 印象(이것은 過大評價할 바 아니라고 測
 定되기도 한다) ④ 独逸問題處理方式을 想起시키는 蘇聯의 世界政策
 의 論理的一貫性 追求 ⑤ 蘇聯이 提起한 亞細亞安保体制構想에 結附
 된 韓國의 戰略的 重要性認識등이다.

그리고 共産大國들의 对外政策生理로 미루어 思想, 理念 및 体制
 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修交實現 條件은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 ① 그 対象國이 強力한 때 (西獨과 같은 경우)
- ② 対象國이 어떤 매력을 지니었을 때 (例컨대 戰略的 要衝,
牽制效果등을 想定할 경우)
- ③ 다른 強大國과의 「흥정」또는 交換 거리가 된다고 認定할
때.
- ④ 어떤 大義名分이 賦与될 때.

그리하여 韓國의 北韓背景國들에 대한 心理戰的 「어프로우치」에
 서의 方向設定은

- ① 韓國의 自主성과 对外政策의 脱「이데올로기」的 柔軟性에 관
한 認識賦与.
- ② 北韓의 사실상 「팻쇼」化 印象.

③ 韓國의 漸高하는 国力과 매력

④ 韓國의 無視못할 國際關係而의 比重.

⑤ 韓國의 進取的 國政改革과 平和愛好姿勢에 관한 弘報

이러한 考察은 本稿의 總研究主題와는 直接的 關聯이 없는것 같지만 迂回的 對北心理戰의 重要한 局面으로서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Ⅲ. 敵對의 心理戰 移行時의 呼訴 方策

다른 한편 우리의 南北對話統開 및 緊張緩和追求를 위한 直接的, 迂回的인 心理戰의 「어프로치」가 끝내 北韓측의 姿勢轉換을 가져오지 못할 最惡의 경우도 想定해야 한다. 우리 측이 北韓의 冒險的 對南政策 露骨化에 決定的으로 直面할 狀況變化라면 對北心理戰도 本來의 意味에서의 敵對의 心理戰에 移行할 밖에 斷道理가 없을 것이다. 그 경우의 效果的인 呼訴 方策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北韓의 金日成體制를 時代逆行的, 反民族 反人間的 個人迷信 體制로 斷罪한다.

② 北韓이 自由民主主義가 아니면서도 우리 측에 自由와 民主主義가 없다고 逆宣傳하는데 비추어 우리는 北韓을 似而非 「마르크스, 레닌」 主義의 「팻쇼」集團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③ 그들의 「統革黨의 소리」에 맞먹는 우리 측의 새放送網을

創設한다.

④ 北韓의 疎外層에 各階層別로 呼訴하여 反共, 反「스탈린」, 自由化 颯起를 鼓舞, 推進한다.

⑤ 金日成集團에게 不利한 「뉴스」의 洪水를 北韓住民에게 안겨 주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 「뉴스」源이 不足하면 外信報道에 着眼한다.

⑥ 南韓의 優點으로는 自由民主主義體制뿐만 아니라 특히 人間性, 人情味의 健在와 傳統的生活樣式의 保護를 強調한다. 北韓住民들은 바로 그점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Ⅳ. 對北心理戰을 위한 一般的與件造成의 現段階要請

무릇 心理戰의 効率的인 展開을 위해서는 一線實務者들의 質과 正確한 方法論的指針도 必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不足하다. 일할 수 있는 뒷받침과 더불어 그들이 서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基盤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觀點에서 攻守兩面에 共通된 對北心理戰의 効率的展開을 위한 一般的 與件造成의 現段階 要請을 整理하고자 한다.

① 民主的 庶政刷新을 통한 國民總和 바탕위의 國政安定.

② 言論機關에 대한 統制緩和와 동시에 그 積極的協調體制的 樹立.

③ 共產圈情報를 다루는 官民合同의 國策通信社 設立.

④ 韓國의 北方政策을 다루며 또 國論統一을 期必하기 위한 與野, 官, 軍, 民合同의 聯合協議體 構成.

⑤ 對北韓政策研究 및 南北對話主担機構의 再整備, 改編.

한동안 適當한 代案이 없어 表面役割까지 맡다싶이 되었던 中情의 役割을 陰地에서 일하며 調整하는 政治參謀部 本然의 것으로 強化, 安着시킬 必要가 있다. 나아가서 複數總理制나 國土統一院의 役割 또는 새協議機構 問題등에 걸친 여러가지 提案을 일단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⑥ 特殊地域研究 및 特殊語學人材들의 確保, 培養을 위해 國策的 配慮를 돌린다.

⑦ 對蘇, 對中共用 交流, 研究, 弘報을 위한 民間團體를 育成, 支援한다.

政府「레벨」의 發言과 行動에는 責任性과 여러가지 制的이 따르므로 民間團體로 하여금 代辯, 代行케 하는것이 便利하고 또한 効果的이다.

⑧ 與野의 「超黨外交」뿐만 아니라 「分工外交」도 勸奨하며 동시에 革新政黨을 育成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그 革新政黨은 西歐式社會主義를 標榜케 하되 現段階에서 이미 提起된 對蘇, 對中共 關係改善에 이바지하게하면 된다.

⑨ 「反共法」이라는 「名稱」의 廢止. 國家安保上 꼭 必要한 條項이라면 國家保安法에 單一化시킬수 있으며, 적어도 韓國의 北方政策이 相互開放을 다짐하는 이때 「反共法」이 있다는 「마이너스」

심볼」은 再檢討되어야 할것이다.

⑩ 北韓의 聯邦制統一方案 내지 五個項統一方案을 論理展開에서 圧倒할 수 있는 韓國의 새統一方案 確定.

⑪ 緊張緩和 制度化를 위한 「平和協定」代案作成.

⑫ 有関國들의 國際會議 및 亞細亞安保問題에 대한 韓國政府 提案準備.

V. 現實的 柔軟構造의 指向

韓國의 對北心理戰은 攻, 守 兩面을 같은 比重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總體的인 北方政策에 대한 寄與를 위해서는 直接的 「애필」外에 迂回的 「어프로우치」라는 方法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안으로는 國民總和, 北韓에 대해서는 現實的說得 혹은 自由化 促進, 그 背景國에 대해서는 「柔軟構造」로 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우리의 對北心理戰은 事實과 制度의 뒷받침을 保障 받아야 하며 이로부터 公信力이 定立된다. 나아가서 生新한 呼訴 力을 躍動케하기 위해서는 心理戰의 第一線實務者가 民間의 學界, 言論界 人士의 日當的 諮問을 迎게하는 措置가 必要하리라고 본다. 그 경우에 散漫하거나 氣分的인 意見開陳에 홀러서는 안되겠기 때

분에 不斷한 또는 定期的인 資料提供과 研究支援이 뒤따라야 할 것
은 물론이다.

北方政策의 新局面 開拓이 國家的으로 重要な 課題라고 提起된
이상, 그 推進의 不可欠한 一翼을 担当한 對北心理戰도 目標設定
및 方法論的整備에 걸쳐 劃期的인 再整備, 強化가 要請된다고 할
것이다.

